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길요 생명인 예수님을 따르며 미국 건국의 기초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교육과 기독교교육이 되어 차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기울이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9월 6일 (토) 제 149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공교육 개혁, 크리스천만이 대안!

#### 바나리서치, 미 공립학교시스템 만족 7%불과...기독교인 책임 제시

“백투스쿨” 시즌이 지나자마자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한 논란이 드세지고 있다. 즉 미국 공립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성인 중 불과 7%만이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초는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의 기초를 다진 미국은 모든 교육의 바탕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두고 있다. 식민지 시기 당시 교육은 사탄의 훼방을 피해 젊을 때 성경적 사실에 입각한 사교육을 제공했을 정도로 기독교적 성향이 강했고, 이에 따라 많은 크리스천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다윈이나 듀이 같은 진화론자와 인본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공교육이 기독교적 정신에서 급격하게 멀어지게 됐다. 특히 1960년대에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고, 인본주의적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어떠한 훈련 및 활동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역 교회와 연계해 세속적인 교육에 대안인 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 운동을 시작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력과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니지 못한 학교들이 역시 설립돼, 학부모들이 실망시키자 1980년대에는 기독교학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홈스쿨링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다시 기독교학교 설립과 지지가 199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과 안전 확보를 위해 크리스천들이 자원봉사자나 스텝으로 사역하면서 지역교회와 함께 연계하는



미 건국의 기초가 된 기독교가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단계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인 46%는 공립교육이 지난 5년 전에 비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입학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취학 아동을 둔 미국 가정 중 34%만이 첫 번째로 공립학교를 뽑고 있을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소위 “공립교육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이제서야 건국 당시부터 미국 교육에 같이 해 온 교회공동체에 기대와 함께 희망을 걸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반드시 교육에 관여해야 한다는 절박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공교육의 개혁과 쇄신에 크리스천들이 참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95%)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공립학교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복음주의자들 중 8명은 교단이나 영적 수준의 차이를 벗어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교육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1)공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 (34%) 2)공교육 개선에 앞장 서는 것이 가난한 자와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 크리스천의 책임(3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측면에서, 이미 지역 교회들은 “교육적 생태계” 설립과 유지에 상당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미국 교육계 지도자들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크리스천들 역시 학교에서 축출된 성경과 기도가 다시 학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한다. 인본주의적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현 교육 관행만으로는 학생들을 온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빛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돕는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비 크리스천보다는 크리스천들이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 65%가 바로 크리스천들이다. 이들은 미국인구 중 절반도 안되지만, 65%가 공교육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기에 통계상으로도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교회들은 지역 학교들에 재정적 후원에서부터 자원봉사자 지원에 이르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신뢰 구축과 유지... 건강한 소그룹 성장 핵심!

#### 스몰그룹닷컴,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켄 윌리엄스의 “신뢰 함수” 소개

신뢰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모임에서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교회의 소그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다른 모임들보다 더욱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리더들이 신뢰를 쌓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신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켄 윌리엄스(Dr. Ken Williams)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BT) 및 SIL과 함께 사역하는 국제 훈련 컨설턴트로서, ITP(International Training Partners, Inc.)의 설립자이며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신뢰가 대인관계 형성과 구축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 리더 신뢰가 우선...리더가 먼저 그룹원 신뢰 성품, 말, 행동에서 우리나라는 신뢰 쌓아야

소그룹과 같은 모임에 속한 지체들이 리더인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많은 리더들은 감정적 상처를 입고, 자기를 왜 믿어주지 않느냐며 저들을 비난한다. 사실 리더라면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또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그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 리더들은 결국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실패한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신뢰를 쌓으려면 성품에서 말과 행동이 우리나라와 같다. 자기 성품이 부족한데 억지로 신뢰를 쌓으려고 해봐야 조만간에 탄로가 나게 마련이다. 말과 행동, 태도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결국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
2.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신뢰를 쌓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 순간의 부주의로 몇 년 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붕괴직전 리비아 현실 이해하고 복음 전한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인터뷰 이천 목사



16면

“Jesus Te Ama” 예수님 사랑안고 선교지로...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 들을 돕기 위한

## 제 2회 찬양선교 음악회

출연팀 : LA 남성선교합창단, LA 레디 싱어즈, 보치 엘레스티, 소노러스 싱어즈, KAM 코랄, 소프라노 최 정민

# 2014 Sep 28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주일), 오후 7시
- 장소 : 주사랑선교교회 (17054 Bixby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714-0691(영육구원), 무료입장
- 후원 : 크리스천비전 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시론**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며!**



**최상섭 목사**  
(에베셀 선교교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탈출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학교는 미국이 크게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정착하는 과정, 계속되어진 역사를 통하여 근절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인종차별이다. 인디언 추방정책, 아프리카에서 붙잡혀 남아메리카로 넘어온 흑인들을 노예로 무자비하게 부렸던 역사도 있다.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에 자랑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 것이 노예제도이다.

1862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차별과 멸시에 기초한 흑백 분리정책은 1950년대까지 흑인들의 삶을 움켜쥐었다. 1955년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어난 흑인여성사건이 인권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1963년 8월 28일 당시 흑인들에게 "I have a dream"이란 주제로 연설한 마틴 루터 킹 J.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고용부문에 인종차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고, 1964년 존슨 대통령도 공공장소, 고용, 선거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개선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인종차별적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폭동사태는,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경찰이 잔인하게 구타한 일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시위가 확산되어 유혈사태, 방화, 약탈로까지 이어져 53명의 사망자,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경찰이 한 흑인소년을 총으로 6발을 쏘아 죽게 한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흑인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곳은 주민의 60%가 흑인이지만 시장, 경찰국장 모두 백인이고, 시의원, 교육위원회 각 1명의 흑인만이 있으며, 경찰관 53명 중 흑인은 3명에 불과하다 한다. 몸수색 당한 자의 92%가 흑인이며, 차량제지를 당한 자의 86%가 흑인이었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하게 법무장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FBI를 동원해 진상조사를 하게 하여 이제는 그 지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아쉬운 것은, 과거에 비해 미국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도 향상되어 가고 있고, 백인들의 지지도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재선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인종 차별적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흑인들이 한국인들, 한국인들이 흑인들과 멕시코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일들도 적지 않다 한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베트남인들, 그 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한국인들이 차별하여 폭언, 입금을 착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모습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기독교내에서도 큰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 사이에, 중직자와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인종과 피부색, 언어와 지역을 초월하여 차별이 사라져 더 이상의 갈등상황으로 인한 소외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기에 인종과 피부색깔, 교육수준,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데 지음 받은 인간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차별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창조의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다(딤후2:4). 특히 시대적 선교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중하게 대하신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인격적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삶을 살며,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살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고대해 본다.

**붕괴직전 리비아 현실 이해하고 복음 전한다!**

**허핑턴포스트, '두 지붕 한가족 체제' 이라크 상황 소개**

자스민은 튀니지의 국화로 2010년 12월 18일부터 일어난 튀니지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바로 자스민 혁명인데, 이 혁명이 바로 중동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됐다. 자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한 중동 민주화 운동의 원인은 지독한 물가상승, 오랜 독재 기간 때문이었기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도 중동 내의 그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였고, 리비아에서 내전급 진압이 있을 정도로 더욱 심했다.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이미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 리비아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많은 리비아 민중들이 군부에 희생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될 정도로 심각해버렸다.

그러나 이제 리비아에서는 친정부군과 반군이라는 리비아에는 두 개의 의회와 두 사람의 수상이 있다.

2011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접전이 근래에 일어났다. 지난 6월 이슬람주의자 의원들이 다수였던 의회가 진보파와 연방제파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슬람주의자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새로 선출된 여당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위협을 느낀 새 의원들은 수도 동부에 있는 토브루크로 시로 의회를 옮겼다.

최근 내전 승리로 한 층 우뚝해진 이슬람주의자 세력은 월요일이

양대 세력 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내전으로, 한때 미국까지도 위협했던 리비아의 영광(?)은 사라져, 한마디로 붕괴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사실 3년 전에만 해도 친정부 세력인 '진단인'과 반정부 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은 함께 카다피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현재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또 이들을 추종하는 소규모 군사 세력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놓고 발생하는 끊임없는 무력다툼 때문에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도달했다. 리비아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전해준다(How Libya Became A Country On The Brink Of Collapse).



워지고 있다. 세력 간에 분쟁으로 어려운 것은 민간인이다. 특히 수도 트리폴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타격이 더 크다. 공황과 항구도 폐쇄됐으며 식량과 연료도 모자란 상태다. 수천 명의 리비아 시민들은 안전을 찾아 자기 주거지를 떠나고 있다. 8월초에만 5천명에서 6천 명이 근처 튀니지로 매일 국경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은 직원들을 리비아에서 소환시켰으며 일부 국가는 외교 업무를 차단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마그달리나 무그라베는 지난 8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즉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부상을 당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지역 활동가들 말에 따르면 수십 채의 집이 로켓 폭격, 박격포 또는 대공 무기로 인해 무너졌다"며 "폭격이 워낙 무분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편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친정부군(진단인)과 이슬람반군 양대 세력 간 무력다툼 주변국 압력으로 문제 가중...민간인 삶은 더 어려워져**

되자 예전 의회의 재구성을 강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새 수상까지 임명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다. "이제 리비아에는 두 명의 지도자와 두 개의 의회가 개별 병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진단인 세력은 완전히 다른 이념을 지니고 있다. 데이비드 커크패트릭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진단인 지지자들은 이슬람주의자 세력을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IS)'에 비유한다고 했다. 반면에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단인 세력이 2011년의 혁명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질서를 되찾기 위한 정부와 군의 힘이 역부족이다.

리비아 정부는 연방 차원의 군사력 통솔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역 병력의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병력은 각개 나름대로 다른 의제가 있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오로지 지역 지도자를 향

해 있다. 리비아의 대립 세력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의 프레더릭 웨리는 설명한다. 이슬람 세력과 진보파와의 정치적 분열, 미스라타와 진단 병력의 지역 분열,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옛 지배권과 자칭 혁명가라고 일컫는 세력 사이의 분열이다. "나머지 파벌을 다 제압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웨리는 말한다.

지역 국가들의 압력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리비아를 둘러싼 강국들의 개입으로 리비아 내 세력 간의 충돌은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 측 간부가 리비아에서 벌어졌던 정체를 모를 전투기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격은 이집트와 아랍 에미리트의 행위라고 뉴욕타임스에 폭로했다. 두 국가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비난은 물론 미국과 동지 국가에서는 리비아 내부 상황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린 상태다. 타임스는 리비아가 아랍 국가들

의 새로운 압력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주의자인 이집트 대통령이 일년 전에 쫓겨나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가 주축이 돼 지역 국가의 이슬람주의자 세력을 약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아랍의 봄' 이후에 발췌된 터키와 카타르가 옹호하는 '무슬림 동포단' 같은 이슬람주의자 세력이 이집트, 사우디와 아랍 에미리트에 맞서고 있다.

리비아 민간인의 삶은 더 어려

중동민주화혁명은 1500년 중동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아직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리비아 등에서는 여전히 이 혁명이 진행 중이다.

중동민주화 혁명 3주년이 되는 즈음 다시금 이 혁명을 돌아보고 오늘날 실제 중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특별히 선교적으로도 정치 사회적 변화가 현지 영혼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기에, 변화하는 중동상황에는 맞는 선교가 진행돼야 한다. 리비아 민간인들에게도 이러한 접근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b>장영춘</b>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편집국장서리: <b>유원정</b>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특별 장학혜택 을 드립니다.

###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 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 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환경·우수성 신장에 참여 당위성 증가

## 바나리서치, 미 공립학교시스템 만족 7%불과...기독교인 책임 제시

(1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미국 교회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은 크리스천 교육자들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1/4 정도의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십대들에게 애프터스쿨이나 멘토링을 하고 있고, 2/5의 유스미니스트리 담당 목회자들은 학생들의 대학 결정을 같이 나누며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이미 공교육 개



### 기독교인 24%만 공립교 선택...홈스쿨링, 차터스쿨 병행 미국인구 절반 안되는 기독교인, 자원봉사자 65% 차지

선과 쇠신에 앞장을 서고 있지만, 왜 다른 부모들이나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 무관심할까?

바나리서치는 설문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봤다. 다시 말해서 공립학교 교육 향상에 사람들을 가로 막고 있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가 없어서(47%) 2) 어떻게 도움을 몰라서(16%) 3) 공립학교는 신앙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14%).
- 결국 미국 공교육 개선에는 즉각적이거나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대,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해왔던 공헌이나 헌신들이 그나마 공교육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바나리서치는 말한다.
- 통계상으로도 크리스천들의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입증된다. 먼저 크리스천들은 비크리스천들에 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공립학교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불과 24%만이 공립학교를 택한다. 반면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크리스천들은 40%가 공립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중 6%는 기독교나 캐톨릭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고,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도 홈스쿨링이나 차터스쿨들을 병행시키면서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마지못해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기에 동시에 공립학교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란 측면에서 관련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85%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원봉사나 재정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는 졸업율이 최하인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시켜 상급학교로 보내게 되는 비율의 증가로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만약 미전역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부모로서의 책임감 즉 "주안에서 너희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씀에 임하게 열정과 헌신을 다한다면, 미국 공교육의 미래에는 환한 무지개만이 보일 수 있다고 바나리서치는 전망한다.

(공교육에 대한 설문은 지난 2013년 5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한 결과로, 미전역에서 4,495명이 참여해 전화와 인터넷 설문으로 공교육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오고갔다. 신뢰도는 95%이고, 표본 오차율은 +/- 3.1%다.)

### 신뢰 구축과 유지... 건강한 소그룹 성장 핵심!

(1면에서 계속)  
3.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한 번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그 이전에 그 신뢰를 쌓기 위해 사용됐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된다. 신뢰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함께 하려 한다면,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임에 신뢰가 구축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7. 리더가 먼저 신뢰해야 한다.  
리더는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기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 소그룹 내에서 신뢰를 쌓기 원한다면, 리더가 먼저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다루었듯이, 이것이 그 내면의 성품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4. 신뢰는 섬세하고 연약한 보석이다.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늘 민감해야 한다. 잘못 다루거나 무시해 버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5. 용서와 신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저

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정직했거나 부주의했던 영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을 용서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6.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모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신뢰구축임을 잊어서는 안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사랑의 씨앗

씨앗 하나를 심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법이 없다. 심긴 씨앗이야 썩어서 흙이 되지만 그러나 그 썩은 흙 속에서는 백배, 오십배의 알갱이들이 되살아난다. 본래 씨앗이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한 알의 씨앗의 경우에 따라선 수백 섬의 콩이나 팥이나 쌀이 될 수도 있고, 술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성서의 교훈은 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눈다든지 뿌린다는 사실 자체를 불이익으로 생각하고 한 알 그대로를 간직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은 뿌릴 만한 곳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토양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다. 성서의 비유 속에 나오는 대로 길가나 돌짜밭이나 가시떨기 사이에 뿌리면 종자만 허비할 뿐이다.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 벌기에 여념이 없다. 빈둥거리고 무위도식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잘 사는 것은 백번 천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뿌려야 될 곳과 뿌려선 안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헛된 쓰는 데는 평평대며 뿌리다기도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갑자기 구두쇠가 되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평생 설렁탕 장사로 모은 돈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내어놓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자기네 양말의 기워 신으면서 모은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싱그럽고 향기로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

돈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돈이란 책만드는 종이보다 양질의 종이에 특수 인쇄 처리과정을 거친 뒤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고 불에 넣으면 재가 되고 물에 넣으면 옹해되고 만다. 그뿐인가. 제아무리 산더미 같은 돈 무더기 속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맨손 채 조하다가 빈손으로 죽기 마련이다.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죽은 후에 조금 비싼 관에 들어가고, 조금 비싼 땅에 묻히고, 조금 비싼

수의를 입고 간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감상이고 기분이지 죽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수의를 만들고 묘소 주변을 돈으로 울타리 쳐 준다고 해도 그것 역시 산 사람들의 돈 자랑이지 죽은 사람은 알 턱이 없다. 그러니까 버는 것도 살아서 할 일이고 쓰는 것도 죽기 전에 써야 한다. 우린 흔히 돈이 떨어졌다는 말을 돈이 바닥이 났다고 표현한다. 돈이란 제아무리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쌓아둔다고 해도 바닥이 날 때가 있다. 그래서 성서는 "나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도둑이 있고 썩이 슬고 녹이 슬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것이 있다. 제아무리 나누고 뿌려도 계속 솟아나고 더 많아지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다.

우리네에게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훈련이고 둘은 사랑을 올바로 받는 훈련이다. 사랑이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모양과 결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다.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셨고 적자(赤子)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시큰둥했고 오히려 다른 사랑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는 일반적인 것이 돼 버렸고,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 설정에서부터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실재자들이었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해선 안 될 것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타산이며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사랑해선 안 될 것들과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데는 전투적이며 정작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들을 위해선 배타적이고 기피적이기 일쑤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우리네 좁은 가슴 속에 세계와 우주를 품어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린 얼마든지 사랑의 실재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딸들을 가꾸고 키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월이 지날수록 송고한 사랑의 송가로 메아리쳐 울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그 씨앗은 심을수록 울창한 숲이 된다는 진리 때문일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체는 정갈한 물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논과 밭에 심고 있는 작고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굵고 바르게 자라는 날 우리네 동네방네는 울창한 사랑의 숲이 될 것이다. 공원이 될 것이며, 정원이 될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금 한 알씩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앞뜰과 뒷뜰에 소중하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잘 자라도록 물주고 가꾸십시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부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 6시
- 3 입학시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기독교 박해자(8)-데키우스 발레리우스 황제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였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데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종교와는 다르게 타협을 불허하였기에 통치자로서는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난이 올 때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기독교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나를 이룰 때 국력은 강성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조

선 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매우 편만하여 국가나 가정에 어려움에 입하면 조상의 뱀자리 때문이라는 인식이 편만하여 뱀자리에 관한 소송이 빈번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핑계나 탓으로 돌리려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강력했던 나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장구한 역사를 유지해온 나라가 점점 쇠락해가고 국력이 흔들리자 그 원인을 황제는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했다. 당시 기독교는 황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었던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때에 황제에 오른 사람이 데키우스(Decius Valerianus 249-251)다. 그는 아랍 출신의 필립 황제를 베로나 근처의 전투에서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로마제국을 과거의 강력한 국가로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곁에서 보는 것과 막상 그 자리를 앉아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법이다. 그는 250년 1월에 작심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법령을 선포했다. 즉 로마제국의 모든 시민은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만을 경배하고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그 신에게 신성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이다. 이 포고령은 기독교인들을 크게 반발하게 했다. 이처럼 기독교를 로마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말살하려는 박

해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 편박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칼타고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신을 섬기는 제단에 나갔고 심문을 받기도 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앙을 변절하고 이교도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늘어난 기독교인들로 넘쳐나서 관리의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감독의 인도로 집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합류했다.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서머나에서는 감독 유쿠포(Euctemon)가 배교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들은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 편박으로 로마의 감독 화비안(Fabian), 예루살렘의 감독 디오니

누스(Dioninus)가 처형당했고 칼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us)는 겨우 피신했고 오리게네스(Origenes)는 이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참으로 놀라운 현상들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성도들이 편박 앞에서 배교하는 현상을 보며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오랜 동안의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의 기강을 타락시켰다. 개인들은 부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사도 시대의 신자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던지를 잊어버렸고 그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행위도 없었고 신앙의 훈련도 없었다. 남자들은 흥취하게 수염을 길렀고 여자들의 미는 허위로 장식되었다. 눈 모양도 바꾸었고 머리색도 가짜로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들이 그들의 거룩한 사역을 떨치고 세속적 직업에 종사했다. 그들은 직분을 버리고 양 무

리들을 떠나 해외에 여행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 까 싶다. 그런데 기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고 시도한 데키우스 황제가 고트족과 전쟁 중에 251년 6월에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혹독했던 박해는 끝나게 되었다. 박해를 피해 카타콤베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이나, 배교했던 무리들은 낯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배교한 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변장술로 힘 있는 쪽에 서서 대변자도 나선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삶의 응답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 푸 / 른 / 초 / 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쁨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즉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선지자 직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는 말은 제사장직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말은 왕 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 유일한 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적 사명을 수행한 제사장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레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분이었습니다. 히 4:14,15,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intercession)에 열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이 땅에서 왕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끝내는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이 땅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세 가지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직분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성도의 삶

### (요한계시록 1장 4-6절)

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인간이셨고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인간이셨고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세 가지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직분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4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4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2014년 9월 1일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윤영복 회계: 홍순백/ 서기:김정준/ 홍보담당:이상천

## 담임목사청빙

루이지애나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 Div).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3. 목회 계획서  
4. 최근 시무한 교회 3개월이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온라인(동영상)
- 제출처**  
1.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2 sbpc990@gmail.com
- 연락처**  
유효석장로 (318-349-2347)  
제출기한: 2014년 10월 11일

###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의  
복음화  
전도  
기관과  
단체가  
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은 세계가 폭력의 소용돌이의 깊은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미국내 남부의 흑인 폭동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폭력이 가득하다. 이라크에 침공한 IS의 무차별 살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시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의 폭력, 부족과 나라 사이의 수많은 내전과 군벌들의 폭력, 남미의 마약과 관련된 폭력 등 모든 대륙에서 극심한 폭력으로 인한 열병을 앓고 있다. 진정한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가 없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구분할 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능동적으로는 협박이나 강요와 압력과 위협은 물론이고, 수동적으로는 무시와 무관심이나 의도적인 소외시킴으로도 나타난다. '왕따'의 문제는 인종과 나이와 계층에 관계없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사회적 현상으로 9가지로 나누는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감정적 폭력, 심리적 폭력, 영적 폭력, 문화적 폭력, 언어학대, 경제적 학대, 무시 등으로 구별한다. 또한 그 대상에 따라서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부모와 자녀간의 폭력, 성적학대, 노인학대, 동료들 사이

을 댄 아간 역시 '바침'이 되어서 죽게 된다.

Robert G. Clouse는 저서 War: Four Christian Views에서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네 가지 관점을 묘사한다. 1)전쟁반대론, 혹은 평화론pacifism 2)무저항주의의 non-resistance, 3)정당한 전쟁 the just war 그리고 4)성전the crusade이다. 우리는 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성경은 불의한 탐욕으로 인한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과 앗수르가 행한 과도한 폭력을 대하여도 징치하신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경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 가정폭력이나 개인폭력은 말할 것이 없다. 물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공의로운 전쟁을 허락하셨다.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또

나눔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시지만 또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자신의 평화적인 의도를 분명히 보이셨다.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는 비폭력적이었다. 아니 적극적인 사랑이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지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모든 것들은 폭력적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베드로는 검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장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방어적인 폭력이다. 하지만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역사적으로 폭력으로 검을 든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다.



## 폭력 충만 시대 속의 화평케 하는 자들

뉴욕빌라텔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서 3가지로 나눈다. 1)자기주도 폭력self-directed violence 2)대인 관계 폭력interpersonal violence 3)집단적 폭력collective violence 으로 나눈다.

먼저 자신을 상해하는 것은 자살적 행동과 자기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집단적인 폭력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폭력이 있다. 부족전쟁을 위시해서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세계 전쟁도 포함한다. 산업혁명 이후로 전쟁의 치사율은 급히 증가되었다. 무기의 발달 때문일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4천만명, 2차 세계대전은 7천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은 지난 세기에 세계적인 대전이 있었지만 총 사상자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리노이대학의 Lawrence H. Keeley 교수는 저서 War Before Civilization에서 해마다 한번 이상 전쟁을 치르는 부족들은 87%라고 했다. 그리고 65%는 지속적인 전쟁을 한다. 또한 고대의 전쟁의 사망률은 현대전의 1%의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60%나 된다. 현대전에서 무고한 사상자가 많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지만 부족전쟁이나 현대전쟁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다.

물론 폭력 속에서는 비신체적인 폭력도 동일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힘을 가진 자의 위협은

의 폭력, 타격을 설정하고 집중공격하는 등 그 종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어떤 폭력도 미화되지 않는다.

성경은 폭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폭력에 관한 기록들이 나온다.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가난한 정복할 때 '살아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신20:16-18)는 명령이다. 아말렉 멸절 명령, 미디안 전쟁, 여리고의 점령 등에서 하신 명령을 문제 삼기도 한다. 집단학살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부르시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케 하신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폭력적이라고 곱해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의 점령에서 성경은 그 전쟁의 의미를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요즈음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주장하는 지하드와는 다르다. 구약의 모든 전쟁은 아니지만 여리고 전쟁을 위시한 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의 개념이 있다. 여리고성은 가난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전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모든 것이 '바침'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물이 되었다. 다 제물이 되었고, 또한 제물에 손

한 사회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다(롬 13:1-4). 인생에서 폭력은 일어나지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과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죄에 의한 폭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심판의 개념이 폭력처럼 표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성경의 심판은 세상의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다. 사단이 폭력적이다. 범죄한 인생이 폭력적이다. 최초의 폭력은 개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다. 죄의 결과로 폭력이 사마가 표출된다.

그래서 성경은 폭력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죄를 엄중히 다루셨다. Clouse 교수는 물리적인 폭력에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마음의 폭력이라고 했다. 성경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레 19:17) 명하셨다.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와 비난도 지적하셨다(마 5:21-22). 사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처 주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 같다.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폭력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성경의 방법은 다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는 하

주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다.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적의 마지막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것까지 참으라(눅22:51)' 이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는' 길을 걸어가신다. 십자가 이전의 불의한 재판과 폭력과 학대를 참으셨다. 십자가 위에서도 못박는 원수들과 배반한 자들을 용서하신다. '이것까지 참으라'였다. 부활 후에 배반한 모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물론 주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 진리를 인용하면서 핍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공격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지혜와 순결함의 균형이 필요하다. 어차피 마지막 시대는 폭력의 시대이니까라고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도리어 폭력이 충만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E-Mail: tllpc0316@gmail.com

**Q:** 로마캐톨릭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도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알고 싶습니다.

-벨리에서 이 집사

**A:** 로마캐톨릭교회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여 숭배차 원인 것을 성경적으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높은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준용 목사의 "교회와 이단"을 참고 요약한 내용입니다(p.196-203).

첫째, 교황 시키리우스(Siricius)는 392년 데살로니가의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리아의 영구한 동정을 말했습니다. 둘째,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가 그녀의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죄에서도 자유했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무죄를 발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임신의 첫 순간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하나의 은혜와 특권으로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면제 되었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선언하며 규정한다." 셋째, 마리아를 은혜의 중재자와 그리스도의 공동구속의 중보자로서 마리아의 역할이 근대 캐톨릭 신학에서 두드러집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2년 성직자에게 보내는 회칙에서 "아무도 그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에게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전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며...우리는 우리의 모

### 마리아 숭배는 비성경적...자녀도 생산

든 것을 마리아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그의 성직자에게 보내는 회칙(Magna Dei Matris)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녀의 은혜의 보고(treasury)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천사와 사람의 모든 계급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그녀만이 예수님의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황 피우스 10세는 1904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은...마리아의 자녀이며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마리아는 전 세계와 그녀의 독생자 사이에 가장 능력있는 중보자 화해자이며...은혜의 공급에서 최고의 대리자(성직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교황 피우스 12세는 계12장 1절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세대를 향한 마리아의 승천을 규정했습니다.

로마캐톨릭교회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기에 원죄에서 지켜지고 평생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상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맞보지 않고 혹은 맛보고 즉시 부활하여 아들의 천으로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캐톨릭교회의 주장이 인간이 만든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면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성경의 한두 구절이라도 명확하게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마13:55절의 구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에서 형제들의 헬라이어 아델포이(adelphoi)는 형제들 사촌들 혹은 친척들로 조카들과 삼촌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친 마리아를 사도요한에게 부탁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한 명의 자녀만 있었다고 결론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신약에 9회나 나오며 유다는 신약의 유다에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동정으로 지켰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양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기간** 2014년 8월 21일(목, 저녁) ~ 9월 4일(목, 저녁)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b>1</b>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0일 ~ 12일 천마중학교(강릉) 신학생 기도성회 13일 오산의 최자(남) 금식기도회	12일 ~ 15일 우리동교회(강릉) 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9일 LA 베이커스빌드(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7일 ~ 19일 용인 신학교(용인) 신학생 기도성회 20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4일 ~ 25일 LA 베이커스빌드(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6일 LA 베이커스빌드(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7일 LA 베이커스빌드(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3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7일 ~ 9일 목동교회(목동) 신학생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0일 ~ 22일 신성교회(신성) 신학생 기도성회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3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7일 ~ 9일 목동교회(목동) 신학생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0일 ~ 22일 신성교회(신성) 신학생 기도성회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일 ~ 4일 사해성회(사해) 신학생 기도성회 12일 ~ 15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9일 ~ 22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8일 하늘비교교회(영등포) 신학생 기도성회	9일 ~ 11일 명수교회(강남) 신학생 기도성회 15일 주동교회(회성) 신학생 기도성회 16일 ~ 19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26일 ~ 29일 LA 나성동교회(나성) 신학생 기도성회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6일 LA 베이커스빌드(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8일 ~ 25일 드림교회(김포) 신학생 기도성회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4일 ~ 7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5일 평화의동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1일 ~ 14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용인) 신학생 기도성회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31일 남구주(중앙) 신학생 기도성회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8일 ~ 11일 갈멜산(미주) 신학생 기도성회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신학교(말레이시아) 신학생 기도성회 17일 영문교회(영문) 신학생 기도성회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강릉) 신학생 기도성회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	--	---	---	---	--	--	---	--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도디아(Dhodia)**



도디아는 인도의 북서주에 있는 구자라트(Gujarat)의 동남 끝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타피(Tapi)강의 남쪽 구릉지대에 도디아 촌락이 있다. 이들은 구자라트에서 세 번째로 큰 부족에 속하고 그들의 언어는 빌(Bhil) 어인 도디아(Dhodia)어다. 오래전 구자라트 주가 번영하자 모

든 인접국가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구자라트는 지난 수년간 마라타(Maratha)족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무슬림들이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수랄(Surat)의 동부지역을 요새화 했다. 몽갈(Monghals)족과 마라타의 간의 전쟁이 계속됐으며, 포르투갈인들이 구자라트 영토를 장악했다. 1817년이 되자 영국이 군사력을 일으키고 그다음 해 그들은 마라타가 해산시킨 원주민들의 농토를 교정하려 했다. 1930년 마하마 간디가 영국에게 인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비폭력적인 도디아족은 전쟁 시에는 언제나 무장지대로

터 깊이 후퇴하곤 했다.

**삼의 모습**

도디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웃하고 있는 빌(Bhil)족보다 상위계층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빌족과는 결혼이나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 약간의 예외로 초다리빌족(Chodari Bhil)은 허락한다. 사정만 허락되면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갖는다. 신부감들은 아직 어린 소녀 때 매입한다. 과거 관례적으로 신부는 신앙집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신부의 집으로 결혼을 위해 여행한다. 과부는 보통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도록 남편의 가족에 머물고 있다.

도디아인들은 인근에 살고 있는 힌두교 신도와 함께 축제에 참석한 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단지 연중행사에 함께

기 잡고 종교적인 축제에 나서는 것뿐이다. 촌락의 지도자들만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행사할 뿐이다. 도디아족들은 인도의 많은 빌족(Bhil)과 인척관계를 갖고 있다. 빌이란 단어는 빌리(Billee)에서 유래하는데 그 의미는 활이다. 활은 거의 모든 빌족들의 독특한 무기다. 그러나 도디아인들은 그들의 친족인 빌족과 달리 활과 화살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도디아인들은 선조들의 유목민적인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농사꾼들로 정착해버렸다. 산림에서 일하는 자와 시에서 상업을 하는 자들, 사냥과 물고기 잡는 일들은 제2의 농업이다. 어떤 이들은 수랄(Surat)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곳은 아주 비옥한 토양과 고품질의 면화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일부는 강우량이 많아 벼농사를 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은 지대의 약간

떨 비옥한곳에 살기도 한다. 도디아족들은 옷을 사기위해 곡물을 갖고 시장에 나간다. 여인들은 녹색 혹은 붉은 색의 사리스(어깨에서 허리까지 휘감을 수 있는 옷감) 밑에 블라우스를 입는다. 남으로 만든 구슬과 푸고 동전으로 된 목걸이를 차고 은으로 된 발목 거리를 착용하기도 한다. 남성들은 칸디모자 혹은 터번(turban)을 쓰며, 셔츠는 남성들 사이 대중화되고 있다.

도디아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냇가에 가까이 흠어져 있어 쉽게 고기를 낚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가 용이하다. 집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고용한다. 지붕에 타일을 부착하고 대나무로 지은 작은 오두막이다. 더 가난한 도디아인들은 진흙으로 오두막을 짓는다. 문들은 언제나 북쪽을 향하는데 악귀를 예방

하러함이다.

**신앙**

95%의 도디아 빌 사람들은 토속 종교의 신앙을 따르고 있다. 너무 미신적이며 악령과 사악한 영을 뿌리 깊이 믿고 있다. 형태도 없는 돌과 숲의 조각들로 된 만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이들은 사원이나 종교행위를 행사할 장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나무들 아래 몇 개의 색깔한 돌들을 놓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많은 도디아인들이 술 중독 가운데 있다. 술을 사기위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능으로 자유함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디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번역이 시급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교회 '이단자' 낙서 테러 잇따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교회 3곳이 최근 기독교를 조롱하는 '낙서 테러'를 당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블레이크스닷컴이 1일 보도했다.



콜럼버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세인트바르톨로뮤스 가톨릭교회에 대한 기물 파손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누군가 교회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단자'라고 썼다는 것이다. 또 '알라하 이슬람교인들에게 이단자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권리를 줬다'는 내용의 코란 구절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근의 레이크뷰오브크리스천 교회와 이스터콜럼버스크리스천 교회에서도 비슷한 낙서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낙서 테러를 당한 교회들은 "매우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불쾌해 했다. 세인트 바르톨로뮤스의 더그 마르코스 신부는 "이슬람교인의 선동 메시지인지 단순한 장난인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에만 이런 메시지가 적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이슬람 교인들은 전전긍긍했다. 낙서 테러 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용을 감안했을 때 이슬람교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낙서 테러를 비판하면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슬람센터의 봉사자인 나심 할레드는 "코란을 잘못 이해하는 등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미 교계, 퍼거슨시 상처 치유 앞장**

미국 교회가 흑인 마이클 브라운(18) 총격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폭력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와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 흑인교단인 COGIC(Church of God in Christ)는 최근 교인과 봉사자들을 모집해 퍼거슨시의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9일 이후 퍼거슨시와 인근 지역 거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COGIC 자원봉사자들은 시위 이후 길에 버려진 시위 도구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COGIC 산하단체인 어반이니셔티브의 에드윈 베스 대표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피스오브마인드교회 로브 화이트 목사는 지역 목회자 200여명과 단체를 결성,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목회자들은 지역 청년들과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고 있다. 화이트 목사는 "인론에서 부각된 것과 다르게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보다 평화의 목소리가 더 많다"며 "대화를 거듭할수록 시위대가 진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시의 그레이터세인트마크패밀리교회는 교회 부설 기관에 응급 치료실을 마련,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고 있다. 한때 경찰이 치료실을 급습해 파문이 일었지만 교회는 시위대의 피난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퍼거슨시의 웰스프링교회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샤프턴 목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연대해 금식하며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회 월리스 존슨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환자로 여기고 이들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면서 "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법원, 몰몬교인 일부다처제 허락**

2013년 6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래, 미국 연방 법원이 드디어 일부다처제까지 허락하는 명령을 최근 내렸다.



유타 주에 거주하는 코드 브라운 씨는 4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17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실상 일부다처관계다. 그의 이런 삶은 TLC에서 Sister Wives란 제목의 리얼리티 쇼로 방송되며 전

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여성들은 상호 합의 하에 한 남성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함께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러 명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브라운 씨가 TV에서 인기를 얻자 유타주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브라운 씨는 인근 네바다 주로 이주한 뒤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자신들이 중혼(bigamy)이 아니라 일부다처(polygamy) 관계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브라운 씨는 한 여성과만 혼인신고와 했고, 나머지 여성과는 동거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인 간의 성관계는 사생활의 문제이며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의 판례를 들며, 자신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법원이 결혼관계를 결혼증명서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실제 성관계나 가정 구성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클락 워덤스 판사는 "중혼은 금지하지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생활"이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중혼은 금지, 일부다처는 허가"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브라운 씨는 몰몬교의 금진제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Apostolic United Brethren Church) 신도다. 과거 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지만, 이것이 주범 및 연방법에 어긋나 같음을 겪자 1890년 이래로 금지한 상태다. 그러나 몰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금진제 분파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워덤스 판사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브라운 씨의 일부다처 여부를 조사한 카운티 정부가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주정부가 브라운 씨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연방법원이 지난해 12월의 판결을 재확인하며 최종 명령을 내리자, 유타주 법무장관은 이 문제를 즉각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IS, 또다른 미국기자 스티븐 스티로프 참수**

극단주의적 수니파 반군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스티로프(31)를 참수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미국 언론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인 '사이트'(SITE) 인텔리전스 그룹에 따르면 2일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동영상은 오렌지색 낙하산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은 스티로프가 칼을 든 IS 전사원에 의해 참수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 폴리 기사를 참수하는 동영상 공개한 지 12일만이다.

동영상에 등장한 스티로프는 참수당하기 전 카메라를 향해 "당신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로프의 목에 칼을 들이댄 IS 전사원은 검은 색 복장에 두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썼고 영국식 억양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티로프를 참수하기 전 "오바마, 이슬람 국가를 향한 당신의 오만한 외교정책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며 "우리들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쏘면 우리의 칼은 너희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는 물러나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참수 뒤 잠시 정지됐던 동영상 화면에는 곧 세번째 인질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IS는 또다른 영국인 데이비드 카운트 헤인즈를 살해했다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외무부는 헤인즈의 신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논평을 하지 않았다. IS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미국의 계속된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타임과 포린 폴리시 잡지 등에 기사를 보내는 프리랜서 기자인 스티로프는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백악관은 아직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도중 긴급 보도가 나오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백악관이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 사기 국무부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정보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동영상의 진위라면 우리는 무고한 미국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IS의 야만적 행동에 격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사기 대변인은 "수 명의 미국인들이 IS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스티로프의 어머니인 셸리 스티로프는 뉴욕타임스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IS의 최고지도자(칼리프)를 자처하는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직접 호명하고 "자비를 베풀어 아들을 석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마카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하늘 나그네 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몇몇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풀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7)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카이퍼의 설교자 이해 - 말씀을 섬기는 종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개혁주의 설교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설교자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설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자기 멋대로 주관주의적으로 빠지는 것도 경계했다.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설교자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교는 이론적 지식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중들에게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카이퍼의 설교 스타일은 논쟁적인 방법(argumenter methode)을 많이 사용했다. 아마 이는 카이퍼가 확실한 칼빈주의 운동 확산과 그리고 칼빈주의적 정치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신앙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변증적이고 호

소력 있는 설교를 위해서 논쟁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 방법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카이퍼는 일생동안 그에게 반대

운데 설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그의 칼빈주의적 노선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이는 교회 안에도 많았지만 많은 정치적 반대자들도 있었다. 또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설교자는 항상 믿는 자들의 회중가

(Prediking is Ontmoeting met God en zijn Volk).

물론 인간은 자기 참대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 그

보다는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만나게 된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의 역할이라고 했다.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와 청중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청중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이런 사상은 칼빈과 일치하고 있는데, 칼빈도 설교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만남이라고 했다. 또한 카이퍼는 말하기를 왕의 명령을 전하는 신하의 말이 결정적이듯이 말씀의 종으로서 설교자는 결정적인 직분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Minister Verdi Divini)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기에 결

으로 죽은 설교자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소명이란 것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자각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로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자가 설교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설교자는 그냥 인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의 talentos나 내면적인 부름과 그리고 설교적 소명이 있다고 해도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 온전한 소명이 된다. 특히 카이퍼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부르심을 소개하면서 설교자의 소명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되어짐을 말했다.

특히 카이퍼는 '사역자의 준비'(De Voorbereiding voor de ambtbediening)로서 설교자가 되려는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해야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스펠턴이나 요한 칼빈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설교자를 가리켜서 "왕의 대사(Ambassadeur de Koning)"라고 했다. 달리 말하자면 설교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다. 이는 이미 수세기 동안 모든 개혁교회 회가 지켜온 입장이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왕의 대사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설교자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목사란 바로 목자적 사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이퍼는 설교자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의 설교사역은 놀라운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일 뿐 아니라 설교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신적인 복음(de Goddelijke boodschap)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 역할 왕의 대사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목자적 사역감당

정적인 직분이다. 카이퍼에 있어서 말씀의 봉사자인 설교자의 첫째 자격은 소명(Roeping)이라고 했다. 소명 없이는 설교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살아있는 진리를 영적

다. 즉 설교자란 교회의 머리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이다. 동시에 그것은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다. 그래서 설교자를 말씀의 종(Dienaar van Woord God)이라고 할 수 있다.

## 칼럼 음악목회 (35)

### 또 하나의 지휘자 (6)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음악은 소리에술로서 공간예술과는 달리 시간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미술처럼 작품이 어떤 공간에 의해 존재하고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은 그 순간 울려지고 들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음악은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음악으로서 구성되는 3대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은 곧 작곡과 연주와 감상으로 구분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마다 저는 "당신은 음악인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음악의 3대 부분 중의 하나가 소멸되기 때문에 음악이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작곡자에 의해 작곡되어지고 그 작곡된 음악을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읍니다. 이들 모두가 음악가요, 음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중이나 회중이 예배에서 또는 특별음악예배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음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음악은 소리음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작곡자가 작곡한대로 악보에 표기된 음악만이 소리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악보에 표기되지 않은 소리가 찬양대의 음악에 삽입되어 불협화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연주회장엔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경험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연주시간에 조금 늦었거나 급히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연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연주회장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

을 것입니다. 문마다 안내원이 지키고 있다가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시간에는 출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사람들이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중에 문을 열고 닫으면 악보에 없는 잡음이 연주되고 있는 음악과 섞여 모든 청중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휘자가 아무리 음악을 잘 만들고 정성을 들여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음악의 연주결과가 망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예배시간에 늦게 오는 교인들로 인해 예배 중에 특히 찬양대의 찬양이 연주되고 있는 시간에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찬양의 제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 도중 갑자기 일어나 걸어 다니고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는 이런 행동들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의 찬양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멘"이라고 고향

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본인 이 은혜가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아직 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찬양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은 소리예술이고 시간예술이기 때문에 작곡자의 의도와 작곡된 기법에 의해 소리는 끝이 났어도 연주자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음악의 마지막에 침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표까지도 음악입니다. 시간예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여운입니다. 오직 연주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예술이 바로 음악적 분위기와 여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연주되는 연주곡들 중에는 교향곡이나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 등 다양한 관현악곡들이 있고 성악곡으로도 연가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곡들은 시리즈 음악으로 여러 개의 악장으로 되어있으며 모든 악장을 다 합하여 하나의 곡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박수를 쳐야 할 것

인가? 음악에 교양이 없는 분들이 자주 실수를 하는데 교향곡은 주로 4악장으로 되어있고 협주곡은 주로 3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모든 악장이 끝이 날 때까지 도중에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악장이 다 끝나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역시 교회음악에도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또는 Mass 같은 시리즈 음악이 있습니다. 모든 곡이 다 연주된 후에 박수를 쳐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자주 박수를 치는 바람에 작곡자의 작품에도 지휘자의 음악에도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음악을 즐겨 듣는다면 곧 음악가입니다. 그렇다면 음악가답게 음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곡자의 작품과 지휘자나 연주자의 음악이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비록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지만 온 회중이 화답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창조과학 칼럼 (203)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12) 가축과 공룡

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화론자들 뿐 아니라 창조론자들도 개의 조상으로 방주에서 나온 늑대를 지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화는 진화론자들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론자들은 늑대의 가축화

변이(variation)임을 말해주고 있다. 가축화 과정에서는 생식기간이 길어지거나, 외형이 다양해지거나,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유전정보 재조합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 때문일 것이다. 유전자 재조합

을 위해 창조하신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땅 위의 동물들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공룡이다. 성경에도 배해못 같은 공룡이 등장한다(욥40:15-24). 공룡들은 파충류지만 새들보다 하루 뒤인 창조 주간 6일째 창조되었다. 공룡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시무시한 파충류(terrible lizard)'이듯이 사람들이 공룡을 생각할 때면 대개 집적만한 크기의 무서운 파충류를 상상한다. 그러나 모든 공룡들이 다른 것은 아니다. 공룡들 중에는 다 자란 성체인데도 수탉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다. 높이가 10m가 넘고 길이는 20m가 넘는 공룡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룡의 평균 크기는 조랑말 정도였다고 한다.

세상 과학자들은 공룡이 약 600여 종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변이 형태들이다. 창조된 '종류'로 세면 많아야 50종류에 불과했을 것이다. 앞서 식물의 분류에서 설명 했듯이, 공룡의 경

## 가축은 창조 6일째 그 '종류' 대로 사람을 돕도록 창조 초식동물 공룡 평균 크기는 조랑말 정도, 50종류 불과



창조된 가축과 길들인 가축

우에도 종의 정의와 실제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후에 설명하게 될 거의 무한한 변이의 가능성을 알게 되면 이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공룡의 무시무시한 이빨과 큰 덩치는 호기심과 무서움을 함께 자아내지만 공룡은 원래 모두 다 초식 공룡으로 창조되었다. 만약 처음부터 육식을 하는 공룡이 있었다면, 다른 생체계가 죽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공룡들은 아담의 타락 이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 동안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안 식물만을 먹었을 것이다.

창조주간 5일째에 이어 6일째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처음부터 안락했으며,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 동물들 중에 하나님은 가축들을 특별히 창조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나 후에도, 홍수 심판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5).

이메일: mailfonwchoi@gmail.com

과정의 핵심을 돌연변이(mutation)에 두려고 한다. 사람이 늑대를 돌보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유익한 특징이 나오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을 계속하여 현재의 온순한 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우를 길들인 실험에 의하면 불과 2-3세대 만에 공격성이 약하고 길들여진 여우가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는 가축화가 오랜 세월 동안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유전정보의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 결과로 갑자기 나타난

과 변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 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에 의하면 일부 가축은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되었다. 창조 6일째 하나님은 "가축을 그 종류대로"라고 가축과 일반 짐승을 구분하셨다. 또, 아담의 아들인 아벨은 이미 양을 쳤으며(창4:2), 가인의 7세손인 아말은 유목생활을 하며 '가축을 치는 첫 조상'(창4:2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아가 방주에 실은 동물에도 가축이 따로 명시되어있다(창7:13-15; 8:1). 그러므로 현재의 가축들 중에는 야생 동물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도시화 된 현대인들에게 '가축'이란 단어를 꽤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소, 양, 염소, 돼지, 낙타, 말, 토끼 등의 가축들은 사람들에게 고기나 우유, 모피, 노동력, 그리고 운송 수단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들이다. 이 밖에도 개와 고양이처럼 애완용으로 기르는 가축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고 여러 번 '가축'을 언급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유익한 가축들은 언제부터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을까? 진화론에 의하면, 약 1만2천년전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개를 가축화 하였고 이어서 소가 1만년전 그리고 염소, 양, 돼지는 약 8천년전, 말은 약 3천년전 그리고 칠면조는 16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보에 따라서 그 순서와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주장 하나는 이 동물들이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사람들끼리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과정을 '가축화'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다스릴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창1:26, 28). 따라서 사람들은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었다(약3:7). 그 대표적인 동물인 개



## 죽음의 길 함께하기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신학대학교 교수)

20여년을 알고 지낸 분의 아들이 위암에 걸린 것은 4년 전, 그 청년의 나이 서른셋에 있었던 일이다. 워낙 긍정적이고 마음이 순수해서 마치 열다섯 살 소년처럼 느껴지는 조카 같은 청년이다. 첫 수술 후 4년 동안 힘든 키모를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한 동안의 잠잠기, 또 다시 암 수치가 올라가면 키모, 그리고 다시 잠복기를 반복했다. 혈액검사 결과가 잘 나오면 함께 기뻐했고 스킨케어 새로운 암세포가 보인다 하고 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 말, 이곳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에 추운 겨울 한국에 나가 거의 5개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절망적인 결과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청년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혹시 하고 품었던 희망이 사라지면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을 잃는 슬픔도 겪었고, 그 다음해에 어머니도 가셨고, 2년전 어머니도 가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서 C.S. 루이스가 부인을 잃고 쓴 "헤어려 본 슬픔"을 다시 읽기도 했다. 때 마침 컨퍼런스에 갔다가 "죽음을 배우다"라는 좋은 책을 사게 되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시켜주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한 책이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우리의 동료들이,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나의 감정까지 준비시켜주는 못하는 것 같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지만 그래도 기적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늘 얘기했었다. 그러나 막상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웠다, 1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고 울먹일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한달 전부터 음식물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점점 수척해진다. 힘들어도 늘 웃고 있던 얼굴이 심한 통증으로 무표정이 되고, 볼 때마다 너무나 마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짝 감짝 놀라게 된다.

친이모는 아니지만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는 청년이다. 잠복기에 좋아지던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들렀지만 힘들어 할 때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좁은 성경구절을 함께 읽고, 격려하고, 기도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꽤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저는 집으로 가지만 성령님께서 이 방에 계시고 이 청년을 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나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그라지는 청년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맞는 정답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죽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시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평안,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앎으로써만 오는 하늘의 평안만이 답답하게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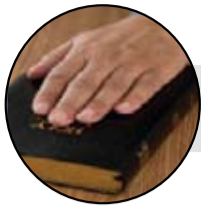
또한 우리 곁에서 죽음의 길을 앞서 가는 형제, 자매들을 돌볼 때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믿음하며 고통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지켜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마음아파 하신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그들의 곁에 있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 같다. 하루하루를 주신대로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가 마치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며 때 우리 곁에서 갑자기 닥친 죽음, 또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앞서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메일: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48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countries including NY, NJ, Brazil, Argentina, Chile, Toronto, Paraguay, and Hawaii.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 그럴수록 더욱 주 예수님을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로부터 돌들을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에 대응하시는데 사용하셨던 말씀이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

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므로 인류를 구원하기에 자격이 합당한 분이심을 실제로 증명하셨다.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갈등, 상처, 고통, 실망,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test)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은 현재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test)하고 계시는 시간으로 인식

하면 정확할 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휘둘러서 침몰 당하고 만다. 눈으로 보기에 너와 나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상황 뒤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시험(test)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라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옛 자아적 기질을 죽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상황을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test)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 한다고 말씀 한다. 즉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

은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의 기질과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갈등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에서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은 당신의 내면을 점점 파괴시켜 갈 것이다.

갈등의 깊은 골을 지나가는 시험(test)의 과정이 그토록 정말 힘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 한다고 말씀 한다. 즉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

여금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케 할 것이다. 시험의 과정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가? 그럴수록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분은 당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케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기를 자청하라. 그리고 먼저 손 내밀고 품으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다.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이 못한 것이고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이 책망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시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이다. 무조건 통과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라.

## 남가주 한인교계 ‘앗시리안 눈물담기’ 동참 이라크 내 세계최초 이방 기독교인... 박해중단 촉구



이라크 앗시리아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티나 박 전 전 LACCD교육국 이사(현시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앗시리아인들이 각종 테러로 박해받는 일이 일러지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앗시리아인들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인커뮤니티도 앗시리아인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는 일이 동참하게 됐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린 이라크 앗시리아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앗시리아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남가주교회와 OC교회 등 한인교회단체들이 모여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앗시리아 기독교인 말살을 위한 박해상황을 설명하고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이라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앗시리아인들이 각종 테러로 박해받는 일이 일러지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앗시리아인들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인커뮤니티도 앗시리아인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는 일이 동참하게 됐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린 이라크 앗시리아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앗시리아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남가주교회와 OC교회 등 한인교회단체들이 모여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앗시리아 기독교인 말살을 위한 박해상황을 설명하고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돌아볼 정도로 한국커뮤니티가 성장했다. 특히 이라크에서 박해받고 있는 앗시리아인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앗시리안은 이라크에서 가장 탄압 받는 소수계다. 같은 소수계에도 쿠르드족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이라크 내 시아파는 이란의 도움을 받는다. 1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앗시리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탄압을 받았다. 지난 6월, 극단주의 테러집단 IS가 이들의 거주 지역을 장악한 이후부터 최악의 밀바닥을 보고 있다. 남자들은 이유도 없이 끌려가 처형되고, 소녀들은 성노예로 팔린다.

데이비드 라자 대표는 “마실 물도 없이 맨땅에서 버티는 하루도 열 마 남지 않았다. 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맨몸으로 도망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제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앗시리아인을 책에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준호 기자)

## “작은 백향목 돼 예수님 천국 만들자”

### KAPC 뉴욕노회 여름목회자가족수양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손한권 목사)가 지난 달 25일부터 사흘간 여름목회자가족수양회를 아널스헤른 리조트에서 가졌다. 노회원들은 수양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수양회 장소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명산을 약 2시간 정도 등반했다. 한여름인데도 깊은 바위 틈에서 는 차가운 냉수가 흘러넘쳤고, 얼음

백향목이 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천국을 만들자”고 말했다. 저녁 만찬 후에는 부모회장이 이영상 목사가 소명의 동기를 간증하면서, 당뇨병에 대한 건강을 강의를 해 목사가 아닌 평민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수양회 장소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명산을 약 2시간 정도 등반했다. 한여름인데도 깊은 바위 틈에서 는 차가운 냉수가 흘러넘쳤고, 얼음



한인가정상담소는 DCFS에서 포스터 아동을 위한 책가방 및 학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 한인가정상담소 아동보호국 책가방 전달식

### 가방과 학용품 세트 총 336개 전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LA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 Family Services(DCFS)에서 아동보호국 책가방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DCFS의 아시안아동 총 책임자인 Aristeo Banico, 아시안아동 담당관 Yoko Parson, 아동보호국 박소영 소실위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 및 에스E송 매니저, 한인포스터 부모교육이수 부모 1가정이 참석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주 동안 아동보호국(DCFS)에 소속되었는 포스터 아동들을 위해 책가방 및 학용품을 후원해주고자 Backpack Drive를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펼쳤으며 모금된 책가방은 총 336개이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주 동안 아동보호국(DCFS)에 소속되었는 포스터 아동들을 위해 책가방 및

학용품을 후원해주고자 Backpack Drive를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펼쳤으며 모금된 책가방은 총 336개이다.

카니정조 소장은 “아시안 포스터 아동들을 위해 가방전달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8월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100개를 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336개 가방과 노트 펜, 자, 바인더, 크레용 등이 포함된 학용품세트가 도네이션됐다”고 말하며,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준 기업과 교회, 그리고 개인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스E송 매니저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준 기업과 교회, 그리고 개인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스E송 매니저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번 모금운동이 많이 홍보됐다. 특별히 한인사회가 마음이 따뜻해서 336개 책가방이 모여져 목표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은 책가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 매니저는 “이번 Backpack Drive를 통해 많은 포스터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직도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번 책가방 전달 이벤트는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마감하게 됐다. 앞으로 포스터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때도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Backpack Drive에는 BBCN 은행, 글로벌어린이재단, Net KAL, Good Works 등 기업에서 후원했다. 교회에서도 후원에 동참했는데 특별히 카리스교회에서 100개 가방을, 나성남포교회에서 36개 가방에 학용품까지 넣어서 후원했다.

한편 가정상담소에서는 한인포스터케어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책가방 싸우는 날’ 행사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티운술 미팅(Help Stop Underage Drinking)을 지난 23일 한인가정상담소 사무실에서 가졌다.

(박준호 기자)



KAPC 뉴욕노회 여름목회자가족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덩어리가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스파, 수영, 골프 등을 즐기며 개인적인 휴식을 가졌다.

저녁 집회에는 이규본 목사가 “나

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전하며, “사람을 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해근 목사의 간증과 노안구 목사의 축주운동

으로 건강을 회복한다는 강의를 시청했다.

마지막 날은 새벽기도 후 김해천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강조하는 ‘설교학’ 강의를 했다. 폐회예배 설교는 부모회장이 이영상 목사가 “그 여인(고델)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아닌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전했다.

이번 수양회는 특히 운영한 목사 와 찬양팀이 예배준비를 담당했다. 뉴욕노회는 노회원의 휴식과 목회자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양회를 가져왔다.

(기사제공: KAPC 뉴욕노회)

## 인/터/뷰 경배와찬양 세미나 인도하는 이천 목사

### 인도자들, 바른 예배에 대한 개념 잘 알아야 찬양은 가사 속 레마로 살아계신 주님 체험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바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 교회에 적합한 찬양인도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경배와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천 목사(ANC 온누리교회 찬양담당)는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이유로 각 교회에서 드러지는 경배와 찬양이 교회의 특성과 동떨어져 있기에 제대로 된 경배와 찬양을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됐다 고 밝혔다.

“많은 경우 예배시간에 실시되는 경배와 찬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은 물론 담임목회자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찬양인도자들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목사는 경배와 찬양은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했다. 즉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경배와 찬양이 다르게 적용돼 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단적 배경에 따라 경배와 찬양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위 대예배라 불리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시간의 경배와 찬양과 수요예배 혹은 금요예배 때 사용되는 경



경배와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천 목사

배와 찬양, 그리고 학생부 예배 때 사용되는 경배와 찬양이 전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예배에서 사용되는 경배와 찬양이 동일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 목사는 찬양인도자의 경배와 찬양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단적 배경에 의해 드러지는 예배스타일에 그들이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이 상충돼 예배에 방해요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도 예수전도단 출신이지만 수많은 예수전도단 출신 찬양인도자들이 주일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검증이 된 자들로 판단이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경배와찬양이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인도가 이뤄지다 보니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과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체예배를 인도하는 담임목회자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찬양인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비롯해 세미나에서 다루지는 내용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언급

했다.

“많은 경우 찬양인도에 대한 스킬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인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찬양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가 서울장신대 재학시절부터 예배음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 강제가 이뤄진다. 이 목사는 각 교단과 교회별로 그리고 찬양인도자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경배와 찬양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복음주의교회의 2중 구조는 말씀과 성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2중구조 안에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경배와 찬양이 어떻게 접목이 돼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예배학이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주의교회의 경배와 찬양에서 중시되는 것은 가사 속에서 레마로 전해지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경험으로 이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교회들의 예배의 경배와 찬양은 그저 준비찬양 개념으로 전락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주일오전에 드리는 대예배는 예배학적으로 디자인돼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목회자들도 예배학에 임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와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각 교단에 맞는 개념정립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단지 예배 전에 실시하는 준비찬양개념으로 흘러버렸었습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 찬양인도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강진에서 공부했지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도 했던 만큼 각 교단별 컬러에 맞는 경배와 찬양에 대해 나눌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예배인도자들이 예배찬양과 경배와 찬양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배와찬양 세미나의 등록비는 50달러다.

연락처 (213)381-1190.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목사회 '자작시 발표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개최하는 목회자 '자작시 발표회'를 앞두고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주제는 "시(詩)가 있는 목회"로, 발표작이나 미발표작이나 무관하며 일인당 다수도 가능하다. 작품 마감은 9월 15일(월)이며 이메일(kyu1115@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발표회는 9월 22일(월) 오후 6시(만찬) 뉴비전교회(황동익 목사).

▲문의: (917)862-0523

## 병원선교회 추석잔치

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올해에도 양로원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잔치를 개최한다. 일시는 9월 6일(토) 오후 2시부터. 장소는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 특별공연으로 국악,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부채춤, 장고춤 외 많은 프로그램과 푸짐한 음식이 준비된다. 병원선교회는 이 잔치의 후원자로 찾고 있다.

▲문의: (914)393-1450

## 기독교 화가 박지용 전시회

기독교 화가 박지용 씨가 새집나무를 소재로 전시회를 갖는다. "Walking in the way of Christ" 주제로 하박국서 3장 17-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했다. 전시 일시는 9월 2일부터 27일까지 맨해튼 530W, 25 St, 4층에서 열린다. 6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리셉션이 있다. 박지용 씨는 홍익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The City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의: (718)483-2373

## 세계자살 예방의 날 기념특별공개세미나

미동부생명의전화(김정국 목사, 김영철 목사)가 세계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기념특별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는 9월 7일(주) 오후 5시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 기념식과 특별세미나 있으며 강사는 이은희 박사("청소년자녀 우울증 조기치료와 자살예방"), 정호영 박사("자살 충동과 징후있는 이와 대화와 배려 어떻게?"), 이계자 사모("공감과 소통이 원활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유지 어떻게?"). 참가비는 없으며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자료, 정신건강에 도움 주는 참고도서목록, 자살방지만내자료 등을 배부한다. 푸른색 초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등록 및 문의: (718)213-8645



월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뉴욕원로목사회 8월 월례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가 지난 28일 뉴욕만나교회당에서 월례회를 가지면서 이인식 목사의 "추석의 뿌리는 성서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가졌다. 이인식 목사는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했다며 회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준 뿐 아니라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복음 전래와 토착화된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 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살롯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참석교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 살롯지역 연합부흥회 성료

살롯지역 연합부흥회가 지난 21일부터 4일간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사 이중찬 목사는 유프와 재치를 발휘해 참석 성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폭포수와 같이 비전과 사명과 살아가야 할 앞길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박한 지식과 함께 성경구절을 줄줄이 인용하며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첫째 날은 "생활 구원을 이루는 성도"(엡2:8-10), 둘째 날은 "큰 믿음의 성도"(마15:21-28), 셋째 날

은 "건강한 성도"(고전2:14-3:3), 마지막 날은 "축복받는 성도"(신 15:4-5)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주일날 낮에는 살롯장로교회에서 톰 9:20-24을 본문으로 "네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교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비결을 가르쳐 큰 은혜를 끼쳤다.

집회 동안 살롯장로교회는 장소 제공과 안내 및 주차지도를 담당하고, 어린이를 위한 체육관을 개방했으며 마지막 날 만찬까지 제공하는 등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

(기사제공: 살롯한인교회협)

# 뉴욕기독교TV, 단비TV로 새출발

## 정상교 사장, 이사장 양춘길 목사 이취임식

설립 15주년을 맞은 뉴욕기독교TV(KCTS)가 '단비TV'로 새 출발을 하고 지난달 28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단비TV는 이날 새 이사장과 사장 등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새 이사장 양춘길 목사는 "단비미션의 일환으로 뉴저지에 기독교방송국 설립을 추진했으나 채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KCTS에서 연락이 왔다"며, "비전이 같아 힘을 합쳐 단비TV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양 이사장은 "미 전국 방송을 추진하기에 방송국 이름에서 '뉴욕'을 빼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난 15년간 어려운 방송선교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해 온 박용기 장로 등 직원들에 감사를 돌리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밖에 복을 주신"(시65:10) 말씀을 들어 "단비같은 방송이 되겠다"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신임 정상교 사장은 단비TV 사장으로 취임하며 "죽을 각오로 하겠



단비TV 사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 목사와 기념촬영 했다.

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사장은 뉴욕중앙일보 종교담당기자로 출몰해 편집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월초 단비TV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단비미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창섭 목사의 인도로 기도 황동의 목사, 설교 김종덕 목사, 축도 조덕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덕 목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 사명을 갖고 세상문화 속에 복음을 싣고 달리는 단비로, 성령의 능력있는 단비의 역사가 뉴욕을 적시고 전 미주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



뉴욕청소년센터 후원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교회협, 청소년센터 후원 골프대회 성황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회장 김승희 목사) 산하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장섭 목사) 밴 구입을 위한 골프대회가 27일 클리버파크 골프장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다. 목회자들과 한인단체 및 핏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90여명이 18홀(70타) 라운딩, 근점대회, 장타대회 등의 경기에 임했다.

대회 챔피언은 총 70타를 친 김영진 씨가 차지했으며 남자부 1등은 김연규 목사, 2등은 김천표 목사, 3등은 정재균 목사, 김준남 목사였다. 여자부 1등은 김나연 씨, 시니어

1등은 김용길 신부, 신현택 목사였다. 또 근점상은 박용광 씨, 장타상은 박동인 씨가 차지했다. 경품추첨에서 아주여행사측이 제공한 한국형 테니스는 진창엽 씨가 당첨됐다.

이번 대회는 뉴욕교회협의 리틀넥 더글라스튼 새 회원 입주에 따라 동일 건물을 사용하게 될 청소년센터에 청소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밴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뉴욕교회협 새 회관 입주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유원정 기자)

# 콜롬비아아동선교센터 방문, 회계 보고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8일 8월 월례회를 열고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 방문보고와 회계보고 등의 일정을 처리했다.

뉴욕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설교 전희수 목사,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12절을 본문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방문했던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김혜정 선교사)에서 받은 감동을 전하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인 행복의 원리를 설교했다.

전 목사는 "행복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겸손, 겸손한 정치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둘째, 내 속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케 해야 한다. 목회자들

이 연합사역을 할 때 인정받지 못해 실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기아대책이 하는 사역도 더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박진하 목사 개회기도 후 콜롬비아 방문 동영상을 방영하고 곧이어 회계 보고에 들어가 권커던 목사(가)가 지난 6월19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재정을 보고했다. 아동 후원금은 9,387,299달러, 일반재정은 수입 8,183달러, 지출 6,995.38달러로 보고했다.

회원들은 콜롬비아 방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후원자를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보용 영상 만들기, 오병이여 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신입회원으로 센터기에서 온 신은철 목사가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진목연 세미나에서 정이철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천주교 바로알기 단장 집중과 작은 뿔 세미나

## 진목연 주최, 정이철, 김재호 목사 강사로

카톨릭 바로알기 세미나가 지난 1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진리수호목회자평신도연대(대표 정이철 목사, 진목연)가 주최했다.

오전강의는 정이철 목사(미시간 에노반석교회 담임)가 "교향의 품으로 달려가는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오후에는 김재호 목사(뉴욕시온산교회 담임)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작은 뿔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정이철 목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왜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묻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천주교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1. 교황제도, 2. 인간 마리아 숭배, 3. 원죄를 제거하는 세례(영세), 4. 십자가 제사를 연장하는 미사에 대해 영상과 아울러 자세히 설명했다.

또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하는 로마천주교는 제2바티칸공의회에서 칼 라이더의 신학 보편위원(만인구원론)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며, 아울러 종교다원주의와 천주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중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독교(개신교)를 향한 천

고 전했다. 단비TV의 '단비'는 2012년 2월 퀸즈장로교회 장영준 원로목사 추대 예배에서 장 목사가 단비미션 이사장에 취임함으로 뉴욕교계에 그 이름을 알렸다. 당시 단비미션은 선교다큐 무료제작 및 방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용기 장로와 문석호 목사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감사패도 수여됐다. 축사는 이병준 목사(뉴저지 교협 부회장)가 맡았으며 미셀김의 바이올린 특주, 단비TV 영상, 정상교 사장의 광고 후 이종식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타임워너케이블 채널1487로 24시간 방송되는 단비TV는 새 운영진을 맞아 선교와 단비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제작해 영상선교의 장을 열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프로그램은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소식을 전하는 단비뉴스, 덕망있는 인물과 함께 이슈를 짚어보는 초대석, 세상을 크리스토의 눈으로 바라보는 '뒤집어보는 세상' 등을 선보인다.

또한 단비TV는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danbiTV.com)를 통해 교계와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 다 음

- (1) 미국(전 미주)를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안내로 발송 받을 수 있도록 정렬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 목사(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의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 한다.
- (5) 리스팅 및 광고 접수: 지금 연락주세요

돌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발라	17cm x 24.5cm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발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으심		
전면흑백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전면 1/8	7.7cm x 11.7cm	\$250.00
	7.7cm x 5.8cm	\$250.00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x 7.5cm	\$200.00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ny@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 la@chpress.net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교실' 세미나에서 김동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교회음향세미나에서 피터박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회 병폐는 교회성장...본질에 치중하라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교실' 세미나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교실' 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명전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3020 Wilshire Blvd.)에서 열렸다.
건강한 교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가진 목회자, 장로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 이번 세미나는 김동일 목사가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 박문규 학장(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대학)이 '건강한 교회의 정책결정 구조', 허성규 교수(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가 '건강한 교회의 회계와 재정', 그리고 허헌 목사(Reconcili Asian)가 '건강한 교회의 갈등전환'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그림은 화학비료와 같은 것이다. 화학비료를 잘 쓰면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토양의 황폐화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개체가 소수이며 결국 본질을 놓친 교회운영으로 인해 교회는 병들어 간다. 그 병들의 현상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화학 비료같은 프로그램으로 교회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분같은 좋은 거름을 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걱정거리로 전락한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박문규 학장은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려 하지 않아서"라며, "절차적 정의를 만들어지면 교회는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음은 어떤 제도와 절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목회자나 장로 등 특정계층에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아닌 교회공동체 모두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기초부터 악기세팅, 케이블수리까지
원하트 미니스트리 주최 교회음향세미나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교회음향세미나가 노동절인 9월 1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KCCC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부교역자, 찬양인도자 및 교회음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이날 세미나는 음향기초, 기초 음향세팅, 악기세팅 및 마이킹 등에 대해 피터박 목사가 강의했으며, 접속불량인 케이블을 수리, 음향기기 세팅 실습을 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보통 20헤르츠에서 2만헤르츠까지"라고 설명하고 "같은 주파수의 소리일지라도 피아노와 기타는 음색이 다르다. 이는 두 악기의 파형과 엔빌로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피커를 볼 때 기본적으로 주파수의 특성, 표준음압, 허용입력 등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스피커를 구입할 때 단순히 와트(W)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와트보다 더 중요해야 할 것은 스피커가 낼 수 있는 데시벨이다"라고 말하고 "앰프를 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옴(Ω)이다. 옴이 낮으면 고출력을 할 때 앰프에 무리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추후 교회음향세미나를 과목화해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교회음향세미나가 노동절인 9월 1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KCCC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부교역자, 찬양인도자 및 교회음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이날 세미나는 음향기초, 기초 음향세팅, 악기세팅 및 마이킹 등에 대해 피터박 목사가 강의했으며, 접속불량인 케이블을 수리, 음향기기 세팅 실습을 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보통 20헤르츠에서 2만헤르츠까지"라고 설명하고 "같은 주파수의 소리일지라도 피아노와 기타는 음색이 다르다. 이는 두 악기의 파형과 엔빌로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피커를 볼 때 기본적으로 주파수의 특성, 표준음압, 허용입력 등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스피커를 구입할 때 단순히 와트(W)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와트보다 더 중요해야 할 것은 스피커가 낼 수 있는 데시벨이다"라고 말하고 "앰프를 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옴(Ω)이다. 옴이 낮으면 고출력을 할 때 앰프에 무리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추후 교회음향세미나를 과목화해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힐교회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콘서트에서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새누리교회 장애우부 특수교육세미나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RTM(장애우부) 주최로 지난 8월 30일 '특수교육세미나'가 열렸다. 조은미 교수(세크라멘토 주립대학)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는 60여명의 장애우 가족과 50여명의 새누리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 마련된 액티비티 부스에서는 장애우 어린이들이 페이스 페인팅, 목걸이 만들기, 사진 찍기, 미니볼링 등을 통해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본 교회 손경일 목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는 모두 예

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토요일 오후 전체를 자원봉사로 수고해서 주신 우리 새누리 자원봉사자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사건은 장애우특별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정리: 이성자 전도사)

오렌지힐교회 주최 '한여름밤의 콘서트'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가 주최한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30일 오후 7시 본 교회 잔디밭에서 열렸다.
이요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리얼밴드와 원하트미니스트리 소속 찬양가수인 백수진, 윤희연, 이하나, 양지아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을 했으며, 출연자들이 찬양을 부를 때 청중들은 함께 부르기도 했다. 또 간증을 할 땐 공감하며 박수로 격려를 하는 등 한여름밤의 악수를 시연하게 되었다.
백창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매우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

는 시간을 마련했다. 피곤한 이민생활 가운데 잔디밭이라는 야외무대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어 하지만 찬양콘서트를 통해 그리고 연주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대표인 피터박 목사는 "오렌지힐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가 출연자와 청중들이 하나가 되는 듯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제 2회 찬양선교음악회
제 2회 찬양선교음악회가 9월 28일(주) 오후 7시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목사)에서 열린다.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및 찬양팀들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LA 남성선교합창단, LA 레디싱어즈, 보치 엘레스티, 소노리스 싱어즈, KAM 코랄, 소프라노 최정원등이 출연한다.
▲문의: (562)714-0691

미주노숙자한인선교단체협 총회
미주노숙자한인선교단체협의회 총회가 9월 9일(화) 오전 9시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주최로 LA성광장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시애틀 동진선교회(김진숙 목사)와 시카고 기도의 집(김광수 목사), 그리고 케네티켓 아가페노숙자교회(유은주 선교사) 등 타지에서 많은 선교회가 참석하게 된다.
▲문의: well3300@gmail.com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후원의 밤 개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한기홍 목사, 이하 미기총) 후원의 밤이 오는 11일(목)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기를 맞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한기홍 목사는 "전 미주 120여개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기도운동집회를 계획하고 이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회 조직과 함께 후원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213)453-5220, dylee0505@gmail.com

전인치유세미나
GIFT상담치유연구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새사람' 전인치유세미나가 9월 13일(토)과 20일(토) 양일간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채플(#109호)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공인된 임상심리학 박사이며, GIFT상담치유연구원과 GIFT평신도 상담치유훈련학교의 원장인 리더이전 박사와 남편인 전담환 박사, 이들은 Holy Wave(영어회중)의 가장 치유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다.
▲문의: (714)522-4438, (213)235-8372

LA목성연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GMBI America 이하 목성연)은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오전10시~오후5시 동문교회(1901 Beverly Blvd, LA)에서 이호승 목사와 공감소통대화법 사역팀들을 강사로 '공감소통대화법'을 개최한다. 교제는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저자 박승호 목사). 본 세미나는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대화법을 알기 원하거나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교재 포함 50달러. 후반기 세미나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안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린 예정이다.
▲문의: (310)955-7162, gmbiaa@gmail.com

미주감신 평신도지도자 위한 과목 신설

미주감리교신학대학(이하 미주감신)이 9월 2일부터 2014년도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
특별히 이번 미주감신에서는 매주 월요일 로스앤젤레스연합감리교회(1800 N. Western Ave. LA.)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구역성경이해"와 "기독교신학이해"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며 9월 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목적은 지금까지 일반화되어있는 QTN 자구적 해석 중심의 성경읽기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며, 신학 기초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신학을 기반으로 주님의 교회를 좀 더 공고히 세우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다.
"기독교이해"는 강성도 학장, "구역성경이해"는 송기수 교무과장이 맡는다.
이번 강좌는 교회와 신학교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교회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건전한 신학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신학교가 되기 위한 미주감신의 노력의 일환이다. 자세한 것은 (831)277-305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감신)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9월 정기총회의 달...주요 교단 총회 이슈는

한국교회 각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의 정기총회가 4일 예정중앙 총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열린다. 올해 총회에서는 임원선거를 비롯, 교단 간 통합, 연금재단 문제, 선거법 개정 등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룬다. 하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연금재단 투자 의혹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미등록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구설수에 올라 성(聖) 총회가 열릴지 미지수다.

균등 배지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또 목회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목회자의 이종직(자비방 목회) 허용 안건과 총회가 파송했던 은퇴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 건립 등 목회자 처우 개선에 대한 현안

## 합동, 총무선거 불가피...예장통합, 총회 연금재단 개혁 관심

22-26일 광주광역시 거주교회에서 개최되는 예장통합 총회는 임원선거가 최대 관심사다. 현 총무인 황금기 목사가 제기한 '총회총무선거금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무선거가 불가피했다. 차기 총회장에도 자동 추대되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는 김승동 박무용 정영진 목사가 출마했고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병행해 한 명을 선출한다.

예장통합 전 총회장들과 예장통합 전 총회장들과의 연합기도회에 대한 대책 등의 처리 방향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는 연금재단 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다. 이는 최근 '인맥 중심의 거대세력' '수술과 과다 지급' '부실기업 등에 편중된 투자' 등 연금재단의 불투명한 운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총회에 상정된 연금재단의 투자처 변경,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재단 이사 구성, 이사들의 연령대와 지역

이 다수 올라왔다. 이단사이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비종교특별법'에 대한 신학·법리적 연구 후 국회에 법안 제정을 청원하는 현안도 눈에 띈다. 백석 총회는 임원선거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추천을 4월 봄 노회가 아닌 총회 직접 8월 임시노회를 통해 하기로 했으며 선거운동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불변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폐지를 안건으로 올려 사무총장 선거 과정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안에는 여목사 자격 제한 해제, 노회 지역 조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대신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백석 교단과의 통합 문제다. 양 교단이 총회 개최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안이 오가는 등 기대를 모았지만 4차례 부결된 적이 있어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사상 초유의 목사부총회장 미등록 사태가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현장에서 부총회장을 뽑기로 한 점은 대신 총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장대신·고신·합신 등 3개 교단 교류추진위원회 안건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22-25일 대전 침신대에서 임원선거와 함께 총회회관 부채 해결 방안,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구원고해 대책 등을 모색한다. 부명한 선거공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기침총회장 선거에는 과도회 윤덕남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 한기총 신임회장 이영훈 목사 당선 "기독교 위상회복 앞장서겠다"

이영훈 신임 한기총 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2일 2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이단사이비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회장 후보로 단독출마한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기총 25-1차 임시총회 및 대표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200여명의 기립박수에 의해 만장일치로 20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일부 대의원이 "단일후보일 경우 무기명 투표와 다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며 박수 추대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도중 사퇴한 홍재철 전 대표회장의 뒤를 이어 2016년 1월까지 한기총을 이끌게 된다.

이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역대 한기총 회장들이 지기려 했던 설립 정신을 적극 지지·수용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와 더 이상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비난받는게 아니라 한국사회가 존경하고 다를 수 있는 모범이 되도록 위상을 회복하

고 그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신임회장은 후보 소견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연합을 위한 노력,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특히 한국교회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문제는 교회 내부를 넘어 한국 사회의 안전과 통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기총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교회 연합 문제와 관련, 한기총을 탈퇴한 교단들의 조건 없는 복귀도 촉구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이날 성명에서 "본 교단은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한기총을 좌시할 수만은 없어 한기총의 회복과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이영훈 총회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데 한기총을 탈퇴했던 모든 보수교단들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 동성애 문화 반대 운동 나선다

### 로마가톨릭&교황청제알리기 운동연대

로마가톨릭&교황청제알리기 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충길 목사)와 로마교황방한대책위원회(회장 변병탁 목사)가 가톨릭 정제 알리기 운동을 벌인대 이어, 동성애문화 확산 반대운동에 적극 나선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동 샘이깊은교회(박병득 목사)에서 8월 12일 일산신텍스 한국교회 대성회·16일 청계천 한빛광장 기도대성회 임원진 감사예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 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가 개최되자 총회 장소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돼 각국의 동성애자들이 몰려들었다"

며 "이런 행위는 교회 단체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행한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성을 통해 명백히 죄악으로 규정하고 제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말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입법화가 진행 중"이라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한 범국민 100만명 서명운동과 목회자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송충길 목사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며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숭배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운동연대는 가톨릭의 실체를 알린 '흑과 백 보다 더 다른 기독교와 가톨릭' 22만부, '가톨릭과 바랍난 한국교회' 94만부 발간에 이어, '가톨릭에 돌아오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책자 10만부를 1차로 발간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만부 발간·보급을 추진 중인 이 책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식과 마리아상모 승천 강론의 문제점,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정성구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은 2:1-4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크리스천이어야 이단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며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 전 총장은 "가톨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전 세계 종교·정치계를 지배하려는 이방종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다"며 "크리스천들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로 살아야한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병탁 목사는 인사말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가톨릭, 동성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 땅에 와서는 저항을 받고 있다"며 "이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즉 그리스도의 저항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한국 선교학자들, 다문화시대 선교 강조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국내 거주 외국인 170만 시대. 선교사 주된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았다는데에서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 고려 없는 일방적 선교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선교를 실시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일 인천시 남구 석바위로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 임의회 교수는 "다문화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한국

교회는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리더십을 '다중적 다문화선교사 리더십'으로 명명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문화 선교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며 "다문화 상황은 항상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교를 '다중적 다문화선교', 여기에 뛰어드는 사역자를 '다중적 다문화선교사'로 명명했다. '다중적'이란 의미는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다문화선교를 겸쳐서 진행할 때를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사실상 동화주의에 가깝다. 이주민은 자신의 고유문화와 가치를 일반적으로 포기하고 주류문화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뿌리 깊은 단일문화에서 비롯됐다. 한국교회 역시 이주민에 대한 권익옹호나 사회적 선교활동을 실시해 이들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살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물질적 욕구들이 충족된다 해도 마음 한 구석엔 부족을 느낀다. 문화 차이로 인한 미흡함이라는 게 임 교수의 분석이다.

## 정연철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인정

### 예장통합, 제비뽑기 선거후 직선투표 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연철(양산 삼양교회)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김승동(구미 상모교회) 박무용(대구 황금교회) 목사와 정 목사의 3파전이 됐으며, 선출확률 33.3%의 제비뽑기 선거 후 직선투표를 진행한다. 교단은 총회 임원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제비뽑기+직선제'로

총회 임원을 선출하며, 후보가 2명일 때만 제비뽑기 없이 선거를 치른다. 선관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시간 토론 끝에 정 목사의 자격을 인정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헌법 제122장 총회 제2조 중 '총대는...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는 조항을 적용해 '경남 양산 삼양교회 당회록에 부총회장을 '부총장'으로 기재한 채 추대하고, 노회 추천과정에서 투표 없이 기립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는 등 하자가

있다'며 정 목사의 후보등록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박수추대'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총회가 혼란에 빠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 분위기가 역전됐다. 이날 참석한 13명의 선관위원들은 정 목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유효표수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며, 12명이 정 목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1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단 내 개혁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 목사의 당선 여부가 이번 총회의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윤실, '총회 공명선거 서약' 받아

### 합동·통합·고신·기장후보 13명 중 11명 참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이달 중 열리는 주요 장로교단 총회의 임원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서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참가 교단은 예장통합, 합동,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4개 교단이다. 이들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 13명 가운데 11명(84.6%)이 공명선거를 서약해 지난해의 61.5%보다 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신과 기장 교단의 목사·장로 부

총회장 후보는 전원 서약했다. 이들 후보는 총회 선거 때까지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했다.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단에서 마련한 선거 규칙과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다. 기윤실은 지난달 초 이들 교단 부총회장 임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 서약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벤엘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예배: 오전 11:00, (8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b>엘파소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0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에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오전 6:00(토)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의 창 (15)

## 미션 트립(Mission Trip)을 위한 훈련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누군가 말하기를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성취를 결정짓는다”라고 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여러분의 지원 속에 해외로 나가는 미션트립 팀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훈련을 받고 가는 경우와 받지 않고 가는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크다. 팀원들은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마음의 폭도 넓어진다. 훈련은 본 과정을 위한 준비이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훈련단계에서 탄탄한 결속과 주님의 기쁨 부으심을 체험해야 한다.

는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외국에 서는 심각한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며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

a. 의상: 열성적인 팀들은 보통 “Jesus Thailand” “예수전당 불신지옥”같은 글을 새긴 빨간색 조끼를 입고 공항에 나타난다. 마치 화제시 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 하듯 하는 분위기이다. 이 믿음과 열정은 가산하지만 현지인의 시각에서 보면 첫 인상부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공산권 지역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여야 할 일이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에 예배자로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배훈련, QT훈련, 기도훈련 등이 있다. 특별히 릴레이 금식기도는 많은 효과를 준다. 이는 준비모임을 시작한 뒤 보통 한 달 뒤부터 시작하면 좋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장되게 한다.

### 5. 사역훈련

앞으로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원할 경우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진 탠트트가 현장에 필요한가? 등을 장기선교사의 권고 아래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 나눔, 간증, 워십댄스, 율판동화, 풍

며 잘못하면 서로 부딪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예견하면서 실제 공동체의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적어도 1박2일 정도 한적한 곳으로 가 공동체 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출발에 앞서 한마디로 단합대회이기 때문이다. 굳이 추구한다면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원들끼리 끈끈한 유대의 시간을 갖으며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다.

### 맺는 말

“뭐가 이리 복잡한가? 그냥 편하게 가 둘러보며 도와주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 Mission Trip을 위



## 방지일 칼럼 (55) “본대로 들은 대로”

### 기대와 다르다

기대하였던 인물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 보자마자 기대와는 다르다. 이런 반응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겠다. 우리 신앙면으로 교회면으로 목사님을 보셨다. 기대와는 다른데? 하는 평이 거의 일반적인 것 같다. 교회 목사님은 아니다. 이런 말은 흔히 들린다. 기대가 컸다가 그렇지 못한 실망에서의 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 기대의 표준이 어디 있었는가 문제되기도 할 것이다.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한다. 좀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내보지도 않은 채 가벼운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기대의 표준을 바로 두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활면이요 모습을 지내보면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무엇이 기대와 같지 않은가 기대했었던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등을 분석해볼 수도 있으리라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것이 평가하는 이가 주관적일 때 그 자신의 평가의 값은 없다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내 교회 정형에 우리교회 수준에 기대하던 대로는 아니다라 평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남지간에 남여가 서로 합의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예절의 풍습 식정의 풍습이 집마다 다르기 쉽다. 그러나 한 술에 밥을 같이 먹고 살면 자연히 서로 기대에 부응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 낳고 가정풍토를 조성하여 살게 되어짐도 우리들이 보는 바이다. 서로 서로 보충하면서 서로의 기대를 한 초점에 맞추어 가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하였다면 피차에 기대에 맞도록 부흥의 계기를 삼으며 시간이 흘러갈 때에 교인들의 생리에 맞게 되어집이 실은 원칙이다.

목사로서도 처음 부임했을 때 기대와는 다르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쉽다.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모모가 목회하였는데 이렇게 목회했는가 선배 선임에게 원망도 함을 보고 들었다. 이도 안된 평가라 하겠다. 전에 어찌했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교회 전통도 살피서 그 교인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려고 수고도 하고 힘도 써야 할 것이다. 내가 맡은 주님의 양이라 잘 먹이며 바로 길러야 할 그 책임감이 강하여 내게 역사할 때 그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만 하면 나도 기대에 맞게 시점이 되어지겠다.

피차간에 자기만족만 채우려는 기대감은 크게 금물이라 이는 이기적이라 좋지 않은 일이다. 성경에 지시한대로 나를 위한 이기적은 악이라 이타를 위한 것이 선이다. 내 만족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이기적이다. 그러나 나는 위함은 곧 선은 없다는 말이라 서로의 기대가 자기만족이었다면 이는 악이라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 기대와 다르다. 교회로서는 주님의 대행자를 보셨으니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케 하는 심정으로 새 교역자를 대한다. 기대에 맞게 나날이 되어질 것이다. 교역자로 가서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흘려 사신 양들을 맡기시라 어느 양 하나가 약한가 어느 양 한 마리가 아픈가 살살이 살피서 그 양 중심으로 사는 그 목자는 자기 기대에 맞게 그 양들이 토실토실 살린다. 건강하게 자란다, 생육한다. 그 목회의 만족감이 생긴다. 이것이 기대하는 목사상이 아니겠는가.

나는 근자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 중 교회로선 “기대와 다르다” 목자에 대한 평가를 듣는다. 목사로서도 부임할 때 기대와는 다르다 하는 평가를 거의 한결같이 받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목자나 교회가 한 참고라 되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집에서 자란 남녀가 애정은 있어 가정을 이루었으나 그 서로 만족이나 하려는 애정이란 기대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내 만족을 초월하고 상대의 만족에 살려는 데서 기대하는 대로 만족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정은 아들 딸 낳고 손자손녀를 기르는 단란한 가정을 이룬다. 교회와 목자는 이와 방불하다 할 것이다. ‘기대와 다르다’가 ‘기대하바 대로로’라 바뀌게 된다.

(1997년 4월)

### 군대에서 “훈련 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라는 말이 있다. 미션 트립의 목표 극대화는 평소 준비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주제는 다양할수록 좋다. 예를 들어 방문국의 기후,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종교, 종교, 문화, 음식, 가정, 자연환경, 주요 경쟁, 젊은이들의 동향 등이다. 팀원들은 리서치를 통해서 선교지를 더 자세히 알아가며 그 땅과 백성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 대원들은 관심분야 별로 내용을 분담한다. 인원에 따라 팀으로 엮어도 좋고 개인별로 담당해도 된다.

척도는 의상이다. 사람은 외모로 먼저 판단하게 되어있다. 타문화권에 간 팀원들은 일거수일투족이 현지인의 눈에 투시된다. 그러므로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너무 화려하고 야한 것이나 편함만을 추구하는 험렁한 것도 마땅치 않다. 항상 기독교인인 한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치 않는 선에서 검소하고 단정한 의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아트, 인형극, 풍물놀이, 드라마, 무인극, 놀이, 영화상영, 사회봉사,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노방전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처음엔 어색하고 잘되지 않지만 3개월간 연습하고 준비하면 나중에는 상당한 실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역의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 선교를 잘하는 가까운 교회들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 준비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평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러려면 아예 가지 말든지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배낭 여행 다녀오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훈련의 목적은 본 대회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다. 청년의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일생에 한 두번 있을 법한 멋진 기회, 더욱이 주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 행사를 어찌 대충 할 수 있는가? 준비가 허술한 미션트립은 괜히 바람만 일으키고 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선교지를 나아가갈 때 어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고사성언에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다. 사람으로서 어떤 일인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성경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라는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2. 언어훈련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언어의 수준에 비례한다. 비록 발음이 서툴고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몇 마디라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외국인이 자국어로 소통을 시도할 때 재미 있어 하며 호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다. 이에 아주 기초적인 예절언어, 길을 묻고 가격을 흥정하는 생활언어, 사역을 위한 기독교 언어 등이 있다.

b. 식사습관: 우리 한국인의 일반적 식사습관은 “찜찜거리며” 소리를 낸다. 이렇게 떠들고 찜찜거리며 먹어야 음식 맛이 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국제적인 식사문화는 대체적으로 입을 다물고 “오물 오물” 조용하게 먹는다. 서구인들은 식사예절을 중시한다. 어느 것이 맞는가? 기준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도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지만 국제적인 좋은 관습을 모방할 필요가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설사 로마에 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음식을 계절스럽게 먹는 식사습관은 고철 필요가 있다.

6. 생활훈련  
흔히 선교지를 방문하면 많은 물자들을 모아 가져다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려운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했다.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떡을 때며 삶을 나눌 때 그들은 감동한다.

7. 단체훈련  
미션 트립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나와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통 2주간 가까이 생활을 해야 한다. 고로 불편하

3. 문화훈련  
타국을 방문할 경우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자국에서

4. 영성훈련  
이 시간은 팀원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e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번은 해당사항이 표시하시요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IS, 한 사람만 개종 거부해도 전원 몰살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는 단 한 사람만 개종을 거부해도 같은 마을의 남자 전원을 몰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보다 더 과격한 IS는 지난 15일 이라크 북부에 자리한 소수종파 야지디족 마을 코초에서 남자 80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했다. 이 학살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칼로프 코데데는 IS의 전원 개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존장(세이크) 혼자 거부하자 IS가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고 증언했다. 현재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반(半)자치지역의 도후크 읍 병원에 입원해 있는 코데데는 "그들(IS)이 우리 모두에게 이슬람으로 전향할 것을 요구해 목숨을 부지하려고 수락했다"며 "그런데 존장이 '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없소'라고 혼자 버텼다"고 말했다. 존장의 개종 거부는 곧 비극의 서막이었다. IS는 마을사람들을 학교 건물로 모이게 했다. 남자들은 1층에, 여자들은 2층에 따로 집합시킨 후 귀중품과 현금은 모두 압수했다. 이후 남자들은 야지디족의 분거지인 신자르로 데려다 주겠다고면서 10-20명씩 미니버스에 태웠다. 그러나 마을 외곽을 벗어나자 갑자기 버스를 세운 반군들은 총

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코데데는 "그들이 우리에게 마구 총을 쏘았다. 그들은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갖고 있었다. 나도 다리와 골반에 총을 맞았다"면서 자신의 상처 부위를 보여줬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시신 밑에 숨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 시간 가량 누워있었으며 마침내 시신들 사이로 저 멀리 시리아계 쿠르드족 전사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쿠르드족 대원들은 코데데의 상처를 닦아주고 시리아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시 이라크로 옮겨졌다. 아직도 병상에서 수혈을 받고 있는 코데데는 "IS가 400-600명 정도 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납치했는데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다"면서 자신의 세 자녀와 아내, 모친의 안위를 염려했다.

야지디족은 조로아스터 계열의 신앙을 조상 대대로 고수한 쿠르드 공동체의 일원으로, IS는 이들의 종교를 '악마 숭배'로 규정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다.

#### 자카르타, 첫 중국계기독교 주지사 맞을 채비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처음으로 중국계 기독교도 주지사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자카르타 주

지사가 당선되면서 부지사인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48, 사진)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코위 당선인은 오는 10월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그의 주지사 임기는 3년 이상 남았다.

바스키 부지사는 이슬람 신자가 1천만여명에 이르는 자카르타를 이끌게 됨으로써 조코위의 대통령 당선에 이어 이 나라 정치사에 또다른 획을 그을 전망이다. 자카르타의 행정 책임을 바이슬람교도는 물론 중국계가 맡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는 인구의 1%를 조금 넘는 데 불과하고 활동분야도 선출직이나 정치보다는 임명직 관리나 경제 분야에 제한됐던 것이 관례다. 특히 중국계가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인도네시아 토착 국민의 불만이 많은데다 친중국 성향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독립 이후 줄곧 정치와 군 요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19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폭동과



사회 혼란기에는 중국계가 약탈의 표적이 돼 수백 명이 숨지고 중국계 상가들이 약탈당했다.

'아혹'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바스키 부지사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조코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예상을 깨고 당선되면서 정계에 만연한 중국계 차별의 벽을 뛰어넘었다.

그는 부지사 취임 후 이슬람단체를 관장하는 부지사 직책을 기독교도가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무슬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이를 극복하고 주 정부의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바스키 부지사는 온화한 성격의 조코위와 달리 무능한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질타하는 등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평이 나 있다. 그는 서부 벨리통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자카르타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뒤 개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2004년 지방 정계에 입문한 뒤 2009년 전국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됐다. 바스키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지사직을 승계하면 조코위 주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및 교육 기회 확대, 대중교통 확충 등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계, 기독교도 자카르타 주지사의 등장은 과거 소수민족이나 바이슬람교도가 차별받았던

인도네시아의 변화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바스키 부지사가 강경 이슬람 단체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고위 선출직 정치인으로 성공을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필리핀, 자국민 IS 공조 움직임에 '전전긍긍'

최근 필리핀인과 호주인들이 이라크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반군세력들로부터 훈련을 받는 등 공조에 나서 해당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필리핀 ABS-CBN방송이 20일 보도했다. ABS-CBN방송은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최소한 100명의 필리핀인이나 수니파 근본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남부지역의 과격 이슬람 단체 아부사야프와 방사모르이슬람자위전사단(BIFF) 조직원들이 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IFF는 최근 필리핀 최대의 이슬람 반군단체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에서 분리된 단체로 MILF가 필리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반발해 이 탈,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라모스는 최근 들어 최소한 100명의 필리핀 이슬람계 청년들이 이라크에 잠입, IS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오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부사야프가 IS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IFF는 최근 IS에 충성을 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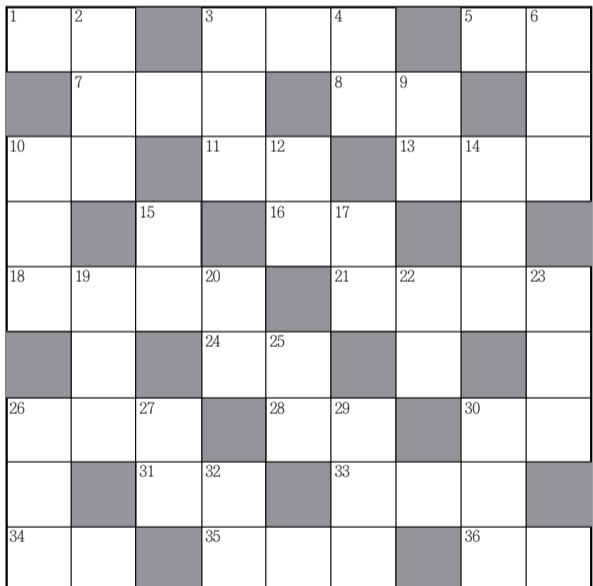
세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BIFF와 아부사야프 반군들이 IS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을 담은 화면이 유튜브에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부 미스리마마 BIFF 대변인은 최근 AFP통신에 IS와의 공조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IS 측이 필요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반군 세력에 가담한 일부 호주 국적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최근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지하드(성전)'에 가담한 자국민이 150명이나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호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도 최근 유튜브 등에 지하드를 선동하는 동영상의 확산을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는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이 소송을 들고 지하드를 선동하는 동영상에 이따라 확인됐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 인근 한 이슬람대학교와 이슬람 사원 등 여러 곳에서는 수니파를 지지하는 집회와 함께 지하드 참전을 독려하는 동영상에 상영됐으며 주변에서는 지하드 참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한 연구기관은 수십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 반군으로 참가했다고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십자말 • Cross Word (5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1. 다리오 왕 때의 선지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3.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행10:15).
5. 갈렙의 딸.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그 딸을 주겠다고 함(사1:12).
7. 사람을 죽인 죄(민35:31).
8. 므낫세 사람 시므다의 아들(대상7:19).
10. 몹시 두려워 함(신28:20).
11. 논밭에서 거둔 곡식, 또는 그 수확량(막12:2).
13. 스마야의 아들(대상26:7).
16. 작하게 여겨 칭찬함(시104:34).
18. 바로 중앙(눅23:45).
21. 이구동성. 여러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함(왕상22:13).
24. 온 백성(겔28:19).
26. 헤브론에 사는 아낙의 아들(수15:14).
28. 식견이 좁아서 세상 일을 전혀 모름(욘8:9).
30. 조개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구슬(마13:45).
31. 서로 떨어진 거리(요21:8).
33.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34. ♪당신은 ○○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35. 제일 첫날(민7:12).
36. 손대지 아니한 거친 땅을 개척해 처음으로 논밭을 만들(사28:24).

#### <세로 푸는 열쇠>

2. 개살구나무의 열매. 보통 살구보다 시고 떼움(명사).
3.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출25:19).
4. 돈, 바사의 금돈(느7:71).
6. 지중해 동쪽 해안의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던 성읍(욘1:20).
9. 벨 열 사람이며 여리고를 건축함(왕상16:34).
10. 속이 텅 빈. 공백(욘38:27).
12. 처녀가 시집을 갈 때(21:3).
14. 예수께서 성령충만을 입어 이 날수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마.....(눅4:1).
15.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수선(수9:5).
17. 시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19. 조용히, 살그머니(갈2:4).
20. 욕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욘4:1).
22. 길을 떠나 감(사18:11).
23.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25. 답답하고 딱하여 격정스러움(욘1:18).
26. 이스라엘왕 예라의 시종(왕상16:9).
27. 모든 물건의 드러난 형상(시33:6).
29. 주일 마다(고전16:2).
30. 우리나라 전라도의 한 섬에서 나는 유명한 토종 개(상식).
32. 제물을 들어서 제사 드림(출29:28).

#### 십자말 정답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 위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인격가꾸기(4)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신자들을 향한 바램은 자신들은 온갖 죄를 다 범해도 되지만 크리스천만큼은 거룩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모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마저도 자신들은 죄를 저도 사모는 거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오랜 스트레스로 건강 헤치고 기형적 성격에 인격도 병들어 예배로 거룩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수시로 수술 받아야

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백성들의 세포 속에 배어 있는 죄악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생활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무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자신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차 있어 아무 소망없이 하루하루 타인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꺼내어 출애굽 시킨 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임을 알려주기 위해 난관을 허락하셨고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 나가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호와'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난관 앞에서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그의 저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 거룩해 질 수 없습니다. 타종교에서 강조하는 인격 수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기독교는 도덕과 교양내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격을 단련하려는 이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교회 안에 복음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도덕을 운운하다보니 성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질 뿐 교회 안에 참 즐거움과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모들의 어깨를 가장 짓누르며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게 되는 것인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온갖 심부름으로 사모들은 예배를 뒤로 두고 갖은 일만 하다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 갖고도 거룩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의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는 수 없이 경건의 모양이라도 해야 합니다. 온갖 종교 활동으로 자신의 인격을 포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모사역을 오래 하다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하게 되어 능숙해집니다.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아무 감각 없이 능숙하게 교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으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온갖 세상의 세력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코람테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사모들에게 이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변화되는 이만사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생기는 풍조들 앞에 힘입어 쓰러져가는 사모들에게는 더욱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갖 스트레스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모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갠년기라도 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력감으로 수면제 앵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모교실을 할 때마다 인격 가꾸기를 위해 우선하는 것이 스트레스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남편목사님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 직장인들의 아내와 다른 점입니다. 남편의 사역에 아무리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가 바라보는 눈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실력부족이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인식이 사모들을 심하게 조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도 잘 못할 시에는 사모가 뭐하고 있는 사람이나로 시작해서 자녀에게 허접이라도 보이게 되면 화살은 사모에게 쉽게 마려옵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안그래도 사모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사모 탈피!! 이것은 사모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예배에 빠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억을 해도 남편이 설교에 죽을 쑤는 날에도 사모는 뒤에 앉아서 온갖 화살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스트레스가 총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사모들이 받는 종류는 특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 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건강도 헤칠 뿐 아니라 성격이 기형적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인격은 병들어버리게 됩니다. 사모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모들끼리의 모임을 인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평신도, 목사, 그 다음 가장 어려운 부류가 사모들이랍니다. 그 이유는 병든 인격을 고쳐 세 없이 그냥 사역에 찌 들어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썩어있던 인격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인격의 병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십니다. 그 말씀으로 수시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한다(눅3:1-14)찬179장

그리스도인 사역의 원동력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첫째, 빈틈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할 때 구원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의 예언일지라도 구체적인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해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까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빈틈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2).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8). 과거 경력, 현재 호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화 새시대에 맞는 생활(눅5:27-39)찬498장

그 나라 왕이 오신 새 시대에 맞는 생활은 어떠해야합니까? 첫째, 그 나라 왕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주님은 네 비유, 곧, 의사, 금식, 새 옷, 새 포도주의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 나라 왕이 자신임을 주장하시며 그 시대에 적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는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 왕은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 친히 일하셨습니다(30-31). 하나님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 있을 때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셋째, 새 시대에 걸맞은 삶을 요구합니다. 율법시대와 가운을 벗고 복음시대의 진리 속에서 온전해지고 자유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38-39). 영적으로 혼란해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알맞은 진리는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생활에 주목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 참된 헌신(눅7:36-50)찬192장

구원받은 신자의 길인 헌신의 삶의 본을 보인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인의 감격스러운 헌신을 따라야 합니다(47).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옥함을 깨뜨려야 합니다. 옥함이란 나 자신이며, 나의 지성, 재능, 나의 삶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잔치에 먼저 대접받은 자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4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은 오는 자마다 쉬게 주십니다. 이 감격을 가진 자

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잔치 대접의 주인공이었으나 실상은 죄사함 받은 무명의 여인이 주님을 대접하는 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셋째,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왕이요 구원주이십니다(50). 세상에 오신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힘써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목 기도에서 오는 변화(눅9:28-36)찬182장

하나님나라는 십자가 곧 그의 별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용모의 변화가 광채로 보이는 그리스도만이 종보사하며 아들이십니다. 그 분만이 보여질 때(31) 어떻게 모든 것이 바로 전파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본 것은 기도하는 때였습니다(32). 둘째, 능력이 동반했습니다(28).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일하셨

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중심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셋째,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황홀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할 때 모든 일이 잠고고 풀려지고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33). 이 변화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금 일곱 영의 역사(눅11:14-26)찬175장

완전의 의미를 가진 일곱 귀신의 역사가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냄이 그 나라가 임한 표적 중 하나입니다. 싸인이 실제로 암시하듯이 능력이 귀신이 도망가는 일은 그 나라의 임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둘째, 더 강한 자로 오신 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죄악

과 육체소욕을 다 처리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마귀가 들어와 진을 치려할지라도 더 강한 분 안에 일하시는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니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내 속의 강한 소욕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승리를 적용함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갈5:24).

토 종말의 지혜(눅21:1-15)찬167장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시대에 어떤 지혜로 살아야합니까? 첫째,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실 때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반복적 표현은 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징조 속에 거짓 교훈의 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 때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징조만이 아니라 그때를 통과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나라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15절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변명할 것을 연구치 말고 하셨습니다. 자기 재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1)종말을 잘 지나는 것은 가난한 마음(마5:3)을 갖는 것이고 2)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령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숨는 일입니다. 성경에 착안하는 자만이 종말의 혼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A grid of 48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international churches.

# “Jesus Te Ama” 예수님 사랑안고 선교지로...

## -남가주든든한교회, 멕시코 까말루 단기선교팀 파송 (하)

### 시원한 바닷바람, 신기한 조개잡이

사역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바닷가. 휴가분함과 감사함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져간 컵라면도 바닥이 난 터라 한 개를 돌이 나눠먹는 다정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에서는 저녁 만찬을 위한 조개잡이에 몰두했다. 주먹만 한 조개들을 파 올리고 신나하는 모습들... 사역마친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상 같았다. 참으로 감사함이 가득한 오후다. 한 시간쯤 만에 한 초롱이나 조개를 잡은 단원들은 신바람이었다. '불타는 조개구이'가 오늘 저녁 메뉴다!

센터로 돌아온 단원들은 조개를 손질하고 한쪽에선 불을 잡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캠프화이어도 있다. 사역도 끝났다. 별식도 준비했다. 캠프화이어를 통해 이제 아름답게 단기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 된다.

###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빠졌어!!!”

캠프화이어에 불이 집혀졌고 기타소리로 들렸다. 가자! 모이자! 캠프화이어 장소로. 그 순간, 흥겨움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빠졌어!!!”

갑갑한 밤, 불빛을 따라 캠프화이어 장소로 몇분이 함께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김현인 담임목사가 그곳에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깊이는 2미터 정도 시멘트로 만들어진 곳이다. 자동차 정비를 위해 만들어놓은 흙이었다. 그 밤에 통곡소리, 기도소리는 밤하늘로 높게 높게 치솟았다.

남자 선교팀원들이 구덩이로 내려가 매트리스에 김 목사를 눕혀 올렸다. 마침 그곳에 체류 중이던 크리스찬선교사(한의)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미 목사님은 의식이 없었고 깃가에서 흐르는 피는 바지에까지 타고 내렸다. 차마 볼 수 없는 모습. 마치 죽은 듯 했다. 그 시골에 엠블런스도 부를 수가 없었다. 벤의 의자를 빼고 매트리스에 김 목사를 눕힌 채 병원으로 향했다.

남은 단원들은 캠프화이어를 뒤로하고 성전에 모였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요! 피가 몇개 해주세요. 엠블런스 구할 수 있게 해주



마지막 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남가주든든한교회 선교팀. 사진 오른쪽은 선교지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는 김현인 목사. 온 교우들이 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울부짖는 소리는 밤의 정막을 깨고 멀리 멀리 메아리쳤다.

### 산킨틴에서 엔세나다, 또다시 샌디에고로

산킨틴 지역 병원에 닿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난감했다. 그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엔세나다로 가간다. 엔세네다는 3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이 아닌가? 절망이었다. 살 수 있는 길은 그 밤에 엔세나다로 향하는 것뿐이었다. 앞서 말한대로 낮에 올 때도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이 한밤중에 엠블런스가 달려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장로님과 몇 분이 엠블런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야 한다.

남아 있는 단원들은 한사람의 미동도 없이 기도를 이어갔다. “하나님, 그 길이 위험하잖아요. 지켜주세요... 좋은 의사 만나야 합니다...” 그 밤에 단원들은 어린아이까지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올인 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도 몇개 하셨다. 엠블런스도 불러주셨다.

3시간 만에 도착한 엔세네다 병원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곳에

고 했다. 발뒤꿈치는 금이 가고 깃가는 찢어져 있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무사히 병원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원망이 교차하며 온 교회, 온 성도들은 릴레이 급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갔다.

### “모든 것 감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임원 3일째 병실을 찾았다. 힘겹게 누워있는 김 목사의 모습은 처절해보였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간간히 입술을 달싹거리며 마음을 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괜찮습니다. 내가 다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단원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이종식 선교사님이 제일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단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는 까말루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성도님들께 전해주시지요.”

고통 속에서도 의연한 김현인 목사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웠다.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목사의 쾌유를 기도했고 멕시코에 뿌리고온 복음의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다.

###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신 하나님

3주가 흘렀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었다. 예정되었던 부흥회도 그대로 진행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됐고 부흥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부흥회도 마치고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새벽, 드디어 김현인 목사는 목발을 짚고 단 위에 올랐다. 그 모습 자체가 은혜이며 감동이었다.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을 지으며 감사를 연발했다.

“우리 목사님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은혜의 아침 돌덩이가 같은 환난이 맞난 떡덩이가 돼 성도들의 마음

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다.

고난을 통한 성도들의 결속은 마치 비온 후 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낳았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있었다.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적을 보게 됐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 더 무장하고 더 전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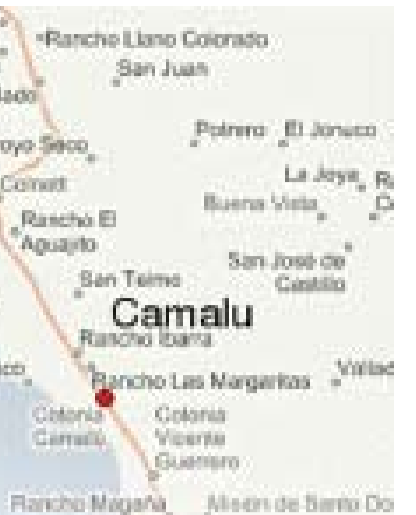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임’을 모두가 절감했다. 영적 전쟁터이기엔 다칠 수도 죽을 수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절감했다. 그렇다고 이 선교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담임목사와 선교위원회를 비롯한 온 성도들의 마음이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 이시기도 하다.

성도들은 고 김옥란 사모가 흘린 순교의 피가, 김현인 목사가 흘린 고난의 피가 멕시코 까말루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힐 것을 확신하며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임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 군사로서의 훈련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또한 까말루 뿐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그 사역지를 위해, 위협을 만나지 않도록 더 간절한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 남가주든든한교회는 또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내년엔 더 무장된 군사들이 돼서 선교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 까말루 지역 이종식 선교사

이종식 선교사는 모두가 어렵다고 외면하는 볼모지 까말루 지역에서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멕시코 선교사관학교, 마약(알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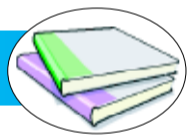
올) 재활센터, 셀교회 등을 통해 실효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 선교사 자신도 이미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치며 오늘도 뛰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사로 소속돼있는 이 선교사는 센터 내 멕시코선교사 관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셀교회를 설립하고 리더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선교사관학교는 10명은 기숙사에서 공부와 센터 일을 돕고, 나머지 15명은 각자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현재 신학생들이 각 지역에 나가 15개의 셀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샌빈센테 재활원에서 헌신하는 전도사도 있고 소모라 바 호아에서 선교센터를 돕고 있는 목사도 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은 물론 9개의 기도제목을 들려 있지 말고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물거게 수입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륙사역을 위한 차량 △내륙학생들의 선교사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사역의 방해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멕시코 내륙의 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평신도 지역자들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의 열매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도록 △건강회복을 위하여 △모방이 아닌 열매 드림을 위한 선교가 되도록 △소노라 지역까지 7개 도시에 선교사 양육을 위한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이종식 선교사의 선교지 후원이나 문의는 jong2319@gmail.com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새책소개



###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



저자 김석원 목사

CCC국제본부 선교사이며 글로벌국제기도공동체(GPS 미니 스트리) 설립자인 김석원 목사의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가 최근 출간됐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저자 김석원 목사의 기도신학 30년의 결정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본서는 김인중 목사, 이영훈 목사, 한기홍 목사 등이 추천서를 쓰기도 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과 성령 충만한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운동 PMT(Prayer

Movement Time)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김석원 목사는 20년전 “기도신학”을 발간하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의 간증들을 밀거름으로 이

번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모르는 경

우가 많으며 주문을 외우듯이 하거나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주

신 기도로 바른 기도의 자세를 정립하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은 1장 피엠타임 PMT: Prayer Movement Time 2장 기도대상, 3장 첫째 간구, 4장 둘째 간구, 5장 셋째 간구, 6장 넷째 간구, 7장 다섯째 간구, 8장 여섯째 간구(1), 9장 여섯째

Prayer Movement Time 2장 기도대상, 3장 첫째 간구, 4장 둘째 간구, 5장 셋째 간구, 6장 넷째 간구, 7장 다섯째 간구, 8장 여섯째 간구(1), 9장 여섯째

간구(2), 10장 송영, 11장 부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장마다 주기도문을 나눠 그 기도문에 대해 3개에서 10개 정도의 소제목에 따라 각각

설명했다. 부록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성가 해설, 기도의 용어로 당신에 대한 사용은 적당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본 사역리와 성령충만 소책자, 주기도문 현상 연구조사 설문지 등이 실려 있다.

총 236페이지, 이레닷컴에서 인쇄했다.

▲저자 이메일: cccc2k@hotmail.com

(유원정 기자)

### 바른 기도 자세 정립하고 경건의 능력 체험

Since 1999  
**HYM**  
New and Bold in Young Christian Movement  
HYM청년연합회  
www.hym.cc





제31회 HYM 청년연합회

**일시** 2014. 9. 20-21 (토, 주일)  
Conference 9/20 9:30AM  
Open Worship 9/20 5:30PM  
9/21 7:00PM

**장소**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강사** 김승욱 목사 (분당 할렐루야교회 담임)

**후원** OC교회 협의회 / Open Bank

conference registration \$15 / \$10- prior to 9/10 refer to [www.hym.cc](http://www.hym.cc) for more info

2 Timothy 2:1-4

# Man of Integrity

Contact info. 714-393-5135 (Douglas Kim 대표) / 714-337-4532 (김석리 목사) / hym21c@gmail.com